metro®
메트로 2014년 7월 24일 목요일 제3021호 www.metroseoul.co.kr

진도를 도웁시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23일 경남 창원시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열린 '진도군 특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이 자연산 돌미역과 돌김 등 진도 특산품을 구매하고 있다. 진도군은 관광객이 발길이 끊기고 농수산물 판매가 실종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태다. /연합뉴스

은행권 불황 그림자 벗어나나

하나금융 성적표 공개…2분기 실적 크게 개선
증권가, 우리금융 깜짝순익 등 장밋빛 전망

은행권이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를 필두로 국내 은행들의 어닝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대기업 부실에 따른 충당금 부담이 예전보다 줄어든 데다 일회성 요인 덕분에 은행권이 '고진감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24일에, 25일에는 KB금융지주가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기업은행은 오는 29일, 우리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는 각각 오는 8월 1일에 2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농협금융지주는 오는 8월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가는 은행권의 2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8일 가장 먼저 실적을 공개한 하나금융지주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진 상태다.

하나금융의 올 2분기 당기순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3403억원을 상회하는 4174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61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6%, 전분기 대비 116.6% 증가한 수치다.

하나금융 측은 "상반기 순익 증가는 양호한 대출자산이 늘어 이자이익이 확충됐고, 수수료 이익 증가와 더불어 비용 효율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의 2분기 영업이익은 5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6% 늘었다. 매출액은 8조6704억원으로 16.1% 증가했다.

김대현 CIMB증권 연구원은 "하나금융이 마진 개선과 지속적인 대출 성장세를 보였다"면서 "실적의 질도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성공적인 통합 여부가 하나금융 투자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순익 깜짝 개선…우리금융 9500억원대 전망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다른 은행들도 대폭 개선된 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됐다.

대신증권은 KB금융지주 등 10개 상장 은행의 2분기 순이익이 2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1.8%,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7.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2조5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은행주는 일회성 요인 덕분에 다른 업종과 달리 큰 폭으로 개선된 실적을 올린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2분기에 은행의 평균 대출성장률은 1분기(1.6%)보다 높은 약 1.8~2.0% 내외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은행별 순이익 전망치는 우리금융지주가 95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 6150억원 환입, 우리자산운용과 우리F&I 매각이익 720억원 등의 일회성 이익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어 ▲신한금융지주 5530억원 ▲KB금융지주 3850억원 ▲기업은행 2650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 변수, 금리인하·충당금·고금리 만기채권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기준금리 인하 등의 전망으로 은행주의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면서 "당분간 순이자마진(NIM) 반등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낮은 금리의 혼합대출 판매가 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대형은행들은 이자마진 관리에 애로를 겪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창 KB투자증권 연구원도 "당분간 금리 하락이 주가에 걸림돌로 작용하겠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은행들이 과거 고금리로 조달한 채권 만기가 올해 몰린 점도 부담 요인이다.

5대 시중은행이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6~7%의 고금리로 조달한 채권의 만기 도래액은 올해 약 1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7조7000억원 어치가 2분기에 만기다.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1조원과 1조7000억원 어치가 대기하고 있어 올 하반기 중 은행들의 순이자마진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한국GM 이어 쌍용차도

한국 GM에 이어 쌍용자동차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고 노조에 제시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게 되면 다른 수당도 함께 오르게 돼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

23일 쌍용자동차에 따르면 사측은 전날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안을 비롯해 복직 조합원 처우 개선, 쌍용자동차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쌍용차 관계자는 "하루빨리 노사 협상을 마무리 짓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조에 이런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는 올해 상반기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4% 늘어난 7만3941대를 판매하는 등 최근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판매대수는 올 상반기에만 3만3235대로 같은 기간 13.5% 늘었고, 해외 판매대수는 4만706대로 8.0% 증가했다.

쌍용차가 통상임금 확대안을 제시한 것은 노사 갈등을 해소하고, 하루빨리 경영정상화의 고삐를 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확대 바람이 자동차업계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임의택기자 ferrari5@

포스트타워 긴급 대피 훈련 서울지방우정청은 최근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해 중부소방서와 합동으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포스트타워에서 근무하는 2000여 명의 직장인들이 화재경보가 울리자 비상계단을 통해 신속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이번 훈련은 서울지방우정청·서울중앙우체국·신한카드·중앙클리닉 등 포스트타워 입주업체 직원 2000여 명과 중부소방서 대원 200명이 참여해 화재발생, 자위소방대 가동, 화재대피, 인명긴급구조, 화재진압 순으로 45분간 진행했다. /서울지방우정청 제공

황당한 검경 국민 망연자실

경찰 변사체 방치 이어 검찰은 "별장에 숨은 유병언 놓쳤다"

검찰과 경찰의 어이없는 행동이 속속 드러나며 검경을 향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의 한 매실 밭에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변사체를 그대로 방치해 40일 간 엄청난 수사력을 낭비한 경찰에 이어 검찰도 지난 5월 25일 전남 순천 별장 수색 당시 유씨가 별장 내부에 숨어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유씨와 함께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에 은신 중 구속된 아해프레스 직원 신모(33·여)씨가 지난달 26일 조사에서 "수사관들이 별장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 유씨를 2층 통나무 벽안에 있는 은신처로 급히 피신시켰다. 수사관들이 수색을 마칠 때까지 유씨는 은신처 안에 숨어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진술을 청취한 이튿날인 6월 27일 순천 별장 내부를 다시 수색했지만 이미 유씨는 도피한 뒤였다.

별장 2층에는 통나무 벽을 잘라서 만든 3평 정도의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좌우 끝 부분은 지붕 경사면으로 돼 있고, 공간 안쪽에는 나무로 만든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밖에서 볼 때는 통나무로 위장해 눈에 띄지 않도록 했다.

검찰은 통나무 벽안의 은신처에서 여행용 가방 2개를 발견했다. 가방 안에는 4번, 5번이라고 적힌 띠지와 함께 현금 8억3000만원, 미화 16만 달러가 들어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5월 25일 첫 수색 당시 통나무 안 공간에 숨어있던 유씨를) 찾지 못한게 통탄할 노릇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어이없다" "검찰과 경찰을 믿어야 하나" "이것마저 거짓아닐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세월호·마른 장마 패션업계 울상

기자 수첩
박 지 원
<생활레저부 기자>

올여름 패션업계가 울상이다.

지난 4월 세월호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잔인한 봄'을 보냈는데, 6~7월 내내 큰 비 없는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장마 특수마저 사라진 것이다. 업체들은 야심차게 준비했던 레인부츠 등 장마철 아이템을 고스란히 재고로 떠안게 생겼다며 속을 끓이고 있다.

실제로 패션 쇼핑몰 아이스타일24에 따르면 이번 시즌 레인부츠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가량 감소했다. 레인코트는 더 심각해 전년 대비 매출이 70%가량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체들은 레인 아이템을 털어내기 위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신통치 않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몇 년간 이어온 레인부츠의 열풍으로 웬만한 여성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는 데다, 이번 여름 오락가락 예측할 수 없는 비가 계속되면서 맑은 날에도 신을 수 있는 젤리·아쿠아 슈즈가 레인부츠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일부 업체에서는 간간히 비 소식이 있으니 그렇게 절망할 수준은 아니라며 파격 할인 대신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날씨와 관련된 패션 아이템은 판매 시기를 놓치면 매출이 줄고 재고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만큼 일부 업체들의 할인 행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업체들은 여름 할인과 동시에 서둘러 가을 옷을 투입하며 간절기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른 추석을 겨냥해 대목 잡기에 올인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경기침체에 사건사고, 엇박자 날씨까지 겹치며 고전하고 있는 패션업계가 발빠른 대응으로 '가을 장사'에서 재미를 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

악수하는 동작을 야권후보 7·30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동작을 야권 단일화를 진행중인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왼쪽)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23일 서울 서초구 현대 HCN방송국에서 열린 동작을 재보선 후보토론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홀로 앉아 있는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의 분위기가 묘하다. /연합뉴스

서울 동작을 '야권 단일화' 파열음

노회찬 "내가 사퇴한다니 그냥 버티나" 기동민 비판

7·30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 간 후보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두 후보는 23일 오후 서울 사당동의 한 커피숍에서 1시간 가량 비공개 회동을 하고 협상을 벌였지만 단일화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기 후보는 후보 간 담판을 통한 후보 단일화를, 노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를 각각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두 후보 간 협상은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신경전만 벌이다가 노 후보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24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럴 경우 야권 후보는 새정치연합 기동민 후보로 사실상 결론나게 된다. 노 후보는 전날 단일화 협상을 제안하면서 "24일까지 단일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후보직을 사퇴하고 기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런 모양새는 한쪽의 책임 문제가 부각되고 후보 단일화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노 후보는 "담판이란 이름 하에 24일까지 버티기만 하면 (내가) 사퇴하니까 그것을 기다리겠다는 것 같은데 책임있는 정당 후보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기 후보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현정기자 jhj@

뉴스&뉴스

박 대통령 내주 여름휴가 청와대 머물러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닷새간으로 예정된 여름 휴가를 청와대에서 보내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기로 한 것은 '세월호 참사'를 맞은 정국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정 불참 서청원 오늘부터 당무 복귀

● 건강상의 이유로 당 지도부 일정에 불참했던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4일부터 당무에 복귀한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오후에는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한·일 국장급 어제 3번째 군 위안부 협의

● 한·일 양국이 23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3번째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 정부는 협의에서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이 고노담화 계승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황우여 '군복무 중 박사 과정' 논란

내달 7일 인사청문회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군 복무 기간 서울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23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황 후보자가 해군 장교로 군 복무 중이던 1972년과 73년 2년간 서울대 법과대학원 박사 과정 4학기를 이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황 후보자의 근무지가 서울·포항 등이었다며 위수지역 이탈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 측은 "72년 서울대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 이듬해 상반기까지 3학기를 이수했으며 마지막 4학기는 등록만 하고 다니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교문위는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7일 실시한다. /조현정기자

열차충돌 기관사 과실 '무게'

"관광열차 자동제동장치 경보 울렸지만 계속 진행"

22일 오후 강원도 태백역~문곡역 사이 철길에서 일어난 영동선 열차 충돌사고 원인으로 기관사 과실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3일 "정확한 사고원인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기관사의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는 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가 정거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해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으로 충돌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관광열차 1량과 여객열차 1량이 각각 탈선해 박모(77·여·경기 안산시)씨가 숨지고 90여 명이 중경상을 입어 태백지역 3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지난 22일 오후 태백역-문곡역 사이 구간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영동선 열차가 휴짓조각처럼 구겨져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무궁화호 열차를 들이받은 관광열차 기관사가 정지신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진행했을 때 자동제동장치(ATS)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열차가 진행하자 자동제동장치가 경보를 울렸고, 기관사가 이를 확인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 전방에 있던 무궁화호와 충돌했다는 것이다.

그는 "기관사가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자동제동장치 알람이 울리면 정차해야 하는데 왜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압수된 '짝퉁'시계 경기도 수원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압수한 짝퉁 명품 시계가 진열돼 있다. 경찰은 23일 오전 중국에서 제작한 짝퉁 시계 7500점(정품시가 1000억원)을 판매한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함정 내 성추행 대위 보직 해임

해군이 같은 함정 내 후배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현역 대위를 '해임'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해군 관계자는 23일 "해군 1함대 징계위원회가 초계함 내에서 지난 3월 말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A 대위에 대해 해임 징계를 어제 결정했다"며 "성추행 피의자에 대한 해임 결정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A 대위는 지난 3월 여군 B 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허락없이 B 소위의 함정 내 방에 들어간 혐의로 17일 1함대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도 선고받았다. 같은 함정에서 근무했던 C 소령도 B 소위에 대해 2월 초 성희롱과 폭언을 한 혐의로 형사입건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김민준기자

한성대 – 한국세무사회, 산학협력

한성대학교는 최근 한국세무사회와 산학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산업체경력 3년이상)이면서 한국세무사회 소속 회원사무소 재직자가 한성대에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경우 수업료 50% 감면의 장학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양 기관은 교육자료 및 지식정보의 상호교환과 행정·경영·관리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협력하게 된다.

부산학자금지원센터 개설

한국장학재단과 부산대는 23일 부산대 본관에서 부산·경남권역 대학생들의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대 캠퍼스 내에 한국장학재단의 부산학자금 지원센터가 개설되게 되며, 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산·경남권 대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등포구, 농촌 체험 학습

서울시 영등포구가 초등학생·부모가 함께하는 농촌 체험 학습을 마련,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자녀 1명과 부모 1명이 짝이 돼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5000원이다.

강북구, 찾아가는 전시회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주민센터가 다음달 15일까지 미아동복합청사 1층 로비에서 '찾아가는 미술관'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시회는 선조들의 유명 작품 복제본과 유명 화가들의 작품 원본 30여 점이 함께 전시된다.

금천구, 산사태 예방 끝내

서울시 금천구는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홍수 등 산림 재해를 막기 위해 시흥동 112-15호 등 3곳에 골막이 14곳, 기슭막이 400m, 바닥막이 25곳을 설치하는 산사태 예방 사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더위 날려! 경남 창원시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가까이 올라간 23일 창원 회원초등학교 학생이 강사가 밀어주는 의자 썰매를 타고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급식 식재료 전면 사전조사

학생 안전위해 단계적 시행… 부적합 농산물 정보 공유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음식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 이후 조사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사전 조사로 전면 대체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2015년부터 학교급식 재료 안전성 조사를 사후조사에서 사전조사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2018년부터 사전조사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공급업체에 대한 음식재료 납품 이후 조사가 지난해 5064건에서 올해 2400건으로 크게 줄고 조사 대상 건수는 지난해 3108건에서 올해 5100건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단계로 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정보를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기관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제공키로 했다.

또 2단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처별로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현재 마련 중인 통합 식품안전정보망에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정보 공유체계를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유해·하자 음식재료를 납품한 부적합 업체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음식재료 구매 입찰공고문과 계약서 특수조건에 입찰자격 제한과 제재근거를 명시하고 부적합업체 정보를 전자조달시템에 등록해 음식재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서울대의대 '인성교육' 강화

내년 신입생부터 인문사회계열 20학점 이상 이수

서울대 의과대학이 의사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2015년도 신입생부터 인문사회과학 측면의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의대는 의예과 학생들의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인문사회계열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토록 하고 ▲자유주제연구 ▲의대생의 정신건강과 공감능력 ▲홀리스틱 에듀케이션 ▲전문가정신 교육과정 등의 신규 교과목 개설을 추진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의예과 1학년 1학기에 신설되는 자유주제연구의 경우 인문사회과학적 주제를 가지고 문제의 추론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또 '의대생의 정신건강과 공감능력'은 건강한 의료인 양성을 위해 의예과 학생들의 정서조절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홀리스틱 에듀케이션은 예비의료인으로서의 인성 함양을 위한 것으로 2015년도부터 2학년 전공 교과목으로 개설될 예정이다.

전문가정신교육과정은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 4학년까지 전 학년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과정으로 의학사·환자심리·환자-의사관계·의료윤리·의료인문학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다혜기자

즐거운 우주캠프 23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2014 국제청소년 우주캠프에 참가한 일본의 청소년들이 공기를 불어 넣어 축구공을 수직으로 솟구치게 하는 비행의 원리를 체험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접흡연 폐질환 인정 안된다"

일터에서 오랜 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돼 폐질환을 얻게 됐다는 퇴직 근로자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윤진규 판사는 23일 박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89년 2월 ㈜전주제지(현 한솔제지)에 입사해 계열사 등에서 11년간 근무한 박씨는 퇴직 후인 2010년 2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칸막이나 벽 없이 탁 트인 당시 사무실 내에서 흡연이 허용됐고, 영업 접대 장소에서도 심각한 간접흡연에 계속 노출된 박씨는 지병을 얻은 것이 업무 환경 탓이라고 봤다. 2012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윤 판사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위험 증가율은 30%에 불과하고, 간접흡연 노출 정도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회사의 주 취급품인 종이의 분진에 자주 노출된 것도 병을 얻게 된 원인이라는 것도 인과관계 증명이 불충분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민준기자 mjkim@

제2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 영화제 상영 프로그램

제2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 영화제(www.movie-guro.or.kr)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신도림 테크노마트, 구로·신도림CGV,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구로구민회관 등 곳곳에서 펼쳐진다. 관람료는 5000원. 단편 영화는 개인 관람 4000원, 단체 관람 2000원이다.

상영관	시간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신도림 테크노 마트	18:30	개막식	-	-	-	-
	20:00	프랜즈				
구로 CGV	10:00	-	비포와 친구들	닐스의 모험	꿀벌 하치의 모험	우리별 1호와 얼룩소
	12:00	-	리얼펫 히어로즈	넛잡	시계 심장을 가진 소년	요술공주 밍키
	15:00	-	럭키 포	퀴치의 시골 생활	에코 플래닛	오즈의 마법사
	17:00	-	가투	매직파워	몽키킹(3D)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19:00	-	몽키킹(3D)	스탠리의 도시락	꿀색	프랜즈
신도림 CGV	10:00	-	꿀벌 하치의 모험	요술공주 밍키	넛잡	닐스의 모험
	12:00	-	우리별 1호와 얼룩소	리얼펫 히어 로즈	프랜즈	비포와 친구들
	15:00	-	스탠리의 도시락	럭키 포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에코 플래닛
	17:00	-	퀴치의 시골 생활	시계심장을 가진 소년	가투	런치박스
	19:00	-	매직파워	오즈의 마법사	런치박스	꿀색
아트 밸리	10:40	단편경쟁1	왕후심청	검정고무신1	단편초청1	단편초청2
	13:00	-	단편경쟁2	영구와 땡칠이	단편초청3	내 이름은 아닌아
	15:00	-	단편경쟁3	단편경쟁4	단편초청4	-
	17:00	-	코르작	단편경쟁1	단편초청5	-
구민 회관	10:40	단편경쟁1	영구, 소림사 가다	단편경쟁3	단편초청2	단편초청1
	13:00	-	갈갈이 패밀리와 드라큐라	단편경쟁4	단편초청4	단편초청3
	15:00	-	단편경쟁2	단편초청6	단편초청5	-
	17:00	-	왕후심청	코르작	단편초청6	폐막식(18:30)

'덕수궁길' 평일 점심땐 보행전용로

서울시가 정동 덕수궁길을 하반기부터 평일 점심때마다 보행전용거리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5월 사흘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대한문~원형분수대 310m 구간을 보행전용거리로 시범 운영했다. 이 결과 일일 보행량이 평시 4995명에서 5241명으로 5% 늘었다. 특히 전체 보행량의 38.7%가 점심때인 오후 12시 15분부터 45분까지 30분 사이에 집중됐다. 또 시민 123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3.4%가 덕수궁길을 보행전용거리로 운영하는 데 찬성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매주 평일 5일간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덕수궁길을 보행전용거리로 정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길거리 공연 등 시민 주도의 다양한 콘텐츠도 기획된다. /김민준기자

371억 '닭 술잔' 새 주인 품에

metro HongKong

국보에 차 따라 마셔

지난 4월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중국 도자기 사상 최고가인 2.8억 홍콩달러(약 371억 원)에 낙찰, 화제가 됐던 명나라 시대 '닭 술잔'이 새 주인의 손에 들어갔다.

술잔을 낙찰 받은 상하이의 수집가 류이첸은 18일 소더비에서 인계 수속을 진행했다. 그는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현장에서 24차례나 카드 결제를 했다. 카드의 1회 결제 한도가 1200만 홍콩달러(약 16억 원)였기 때문이다.

물품 인계행사에서 류이첸은 자신의 손에 들어온 잔을 닦지도 않고 차를 따라 마셨다. 이전에도 경매에서 많은 국보를 낙찰 받았지만 한번도 보물을 직접 사용한 적은 없었다. 그는 "과거 황제나 후궁이 이 잔을 사용했을 것이다. 6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잔에서 당시의 기운을 느껴보고 싶었다"며 미리 계획한 행동이 아니라 잔을 받자마자 너무 감격해서 돌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흰 바탕에 수탉, 암탉, 병아리가 그려져 있는 지름 8cm의 작은 술잔을 가지고 상하이로 돌아오게 된 류이첸은 "드디어 중국 도자기 사상 중요한 보물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 잔을 소유하게 돼 영광스럽다"고 흥분하며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60세 생일 결혼설 사실무근

metro France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여배우와의 결혼설을 공식 부인했다.

지난 21일 기자협회와 두 시간의 저녁 식사를 가진 올랑드 대통령은 다양한 주제로 대화시간을 가졌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러시아, 국토개혁 등 다양한 주제가 있었지만 여배우 줄리 가예와의 결혼설이 단연 화제로 올랐다.

이번 결혼설은 지난 2월 대표적 점성가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트지에르가 올랑드 대통령이 결혼할 것이라 말한데서 시작됐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과 줄리 가예는 대통령의 60세 생일인 오는 8월 12일 결혼을 하게 된다.

이날 대통령과 함께 저녁 만찬을 나눈 한 기자는 트위터에 "대통령에게 결혼설을 묻자 말도 안되는 일이라 답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60세 생일을 축하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올렸다. /주디스 코르베르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EU, 러시아 신규 제재

말레이 여객기 피격 사용 추정 미사일 공급 책임 물어

유럽연합(EU)이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과 관련, 러시아 책임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나섰다.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친러 반군에 공급한 러시아 관리들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란스 팀머만스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 뒤 "EU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러시아 관리를 비자발급 중단과 자산동결 제재 대상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며 "24일 신규 제재 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EU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이미 2단계 제재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세력인사 72명과 크림의 2개 에너지 기업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여러 회원국 장관은 우크라이나 반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를 겨냥해 무기 금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원국 간 견해차로 즉각적인 추가 제재 시행이나 경제 제재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영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자본시장 접근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은 수위를 높인 3단계 경제 제재 채택에는 소극적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와 상륙함 2척 공급 계약에 대해 "당장은 제재 수위가 상륙함 인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며 "계약이 이행될 것인가는 러시아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1년 러시아와 12억 유로(약 1조6600억원)에 헬기 16대를 탑재할 수 있는 미스트랄급 상륙함 두 척을 판매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무역과 에너지 부문에서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은 독일도 경제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네덜란드에서는 희생자 시신 운송기가 도착하는 23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본격적인 신원확인 작업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라고 AFP가 전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반군으로부터 확보한 피격 여객기 블랙박스도 네덜란드 정부가 인계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美 자국기 이스라엘 운항 금지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은 팔레스타인 가자시티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이 2주 넘게 지속되자 세계 주요 항공사는 로켓 공격을 우려해 이스라엘 노선 운항 중단을 잇따라 발표했다. 미국도 자국 항공사의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 운항을 금지하고 유럽연합(EU) 역시 우회비행을 권고했다. 이날 현재 팔레스타인 희생자는 635명으로 늘었다. /AP 연합뉴스

살인 무기 아니라 '환경 파수꾼'

세계 각국 자원보호 목적 무인기 적극 활용

인명 살상 등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무인기(드론)가 환경·자원 보호 분야에서는 최고의 일꾼으로 활약 중이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갖은 논란에도 무인기를 환경·자원 보호 목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나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세계적인 단체인 '야생동물보호협회'는 불법조업구오명에 시달리고 있는 중미 카리브해 연안의 벨리즈 수산부를 대상으로 무인기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바닷가재 조업철을 맞은 벨리즈는 이후 무인기 2대를 띄워 불법 어로 행위를 감시·단속했다.

불법조업 감시·단속을 위해서는 많은 선박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무인기를 활용,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벨리즈는 보고 있다. 환경·자원 보호 활동에 투입되는 무인기는 인명 살상 논란을 일으키는 중대형 무인기에 비해 크기가 작고 고성능 카메라와 원격조종 장치 외 다른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도 있다.

벨리즈 이외에도 많은 나라와 단체가 무인기를 '환경 파수꾼'으로 내세운다. 호주에서는 바다새 분포·이동 현황을 추적하기 위해 무인기를 사용한다. 인도네시아는 강우림의 분포 변화를 연구하는데, 네팔에서는 밀렵 감시·방지를 위해 무인기를 투입하고 있다. /조선미기자

50대 취업자 수 20~30대 앞질렀다

통계청 조사…저출산 고령화가 원인으로

5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30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19만2000명) 늘어난 36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0.5%(1만7000명) 증가한 361만4000명으로 집계된 20대보다 2만9000명 많은 것이다.

환갑을 넘긴 취업자가 손주뻘일 수도 있는 20대보다 많아진 것은 고용동향조사를 시작한 1963년 이후 처음이다. 1분기에는 50대 취업자가 30대를 처음 추월했다.

1분기 50대 취업자는 568만4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567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0.1%(6000명) 감소한 30대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5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30대를 앞질렀다. 2분기 50세 이상 취업자는 952만1000명으로, 20~30대의 933만5000명을 웃돌았다. 전체 취업자에서 연령대별 비중은 고령화 쪽에 무게가 쏠렸다.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1965년 15.91%이던 것이 1987년(20.23%)과 2009년(30.58%) 각각 20%, 30% 선을 넘어섰다. 지난 2분기(36.92%)는 37%에 육박했다.

반면 20~30대 취업자는 1965년 50.33%였지만 등락을 거듭하다 2001년(49.25%)과 2011년(38.93%)에 각각 40%대와 30%대로 내려앉았고, 2분기에 36.19%까지 빠졌다.

이런 흐름은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따라 젊은층 인구가 대체로 감소세인 반면, 50세 이상 인구는 늘어난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15세 이상 연령대별 비중은 1983년만 해도 20대(26.75%), 30대(19.87%), 40대(16.81%), 50대(11.23%), 60세 이상(11.14%) 순이었다. 하지만 2003년에는 30대, 40대, 20대, 60세 이상, 50대 순으로 변화했다.

지난해에는 60세 이상(20.37%)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0.12%), 30대(18.62%), 50대(18.21%), 20대(14.93%) 순이었다. 지난 2분기에는 50대(18.50%)가 30대(18.23%)보다 많아졌다.

/유주영기자 boa@metroseoul.co.kr

보험사 대출 135조↑

보험사가 가계와 기업에 빌려준 돈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13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135조1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2000억원(0.1%), 1년 전보다는 17조7000억원(15.1%)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은 85조7000억원으로, 4월보다 4000억원(0.4%)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2000억원(0.8%), 기타대출이 1000억원(3.9%), 보험계약대출이 1000억원(0.1%) 각각 증가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49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0.4%)이 줄었다. 대기업의 대출은 1000억원 늘었지만, 중소기업 대출(-3000억원)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2000억원)이 감소한 때문이다.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대출채권의 연체율은 0.61%로 한 달전과 같았다.

그러나 가계대출 연체율은 0.49%로 4월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59%로 변동이 없었지만 다른 가계대출 연체율은 0.44%로 0.03%포인트 높아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83%로 0.03%포인트 낮아졌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1.25%)과 부동산PF대출 연체율(4.40%)이 각각 0.04%포인트, 0.07%포인트 하락한 영향이다.

/김민지기자 minji@

"NX 미니 구매하고 미니박스 받으세요" 삼성전자는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NX 미니' 구매 후 제품 등록을 하는 고객 중 선착순 1000명에게 미니액자 겸용 포토엽서, 핑거스트랩, 파우치가 담긴 미니박스 등을 증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10대 그룹 배당수익률, 예금금리 절반도 안돼

92개 상장사 0.82% …'짠돌이' 1위는 롯데그룹

10대 재벌그룹 상장사의 배당 수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은 23일 자산 상위 10대 재벌그룹 소속 92개 상장사의 지난해 중간 배당금을 포함한 결산 배당수익률이 평균 0.8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연 1.9%대로 낮아진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롯데그룹(8개사)은 2011년 0.36%, 2012년 0.23%, 지난해 0.21% 등으로 매년 0.2~0.3%대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해 3년 연속 10대 그룹 중 가장 '짠돌이 배당'을 이어갔다.

현대차그룹(11개사)은 2012년 0.6%에서 지난해 0.58%로 하락해 평균을 밑돌았다. 삼성그룹(16개사)의 배당수익률은 2011년 1.21%, 2012년 1.10%에서 지난해 0.80%로 떨어져 10대 그룹 평균 배당수익률에도 못 미쳤다.

현대중공업그룹(3개사)의 배당수익률은 지난해 배당금 급감으로 0.91%에 그쳐 처음으로 1% 미만으로 추락했다. LG그룹(11개사)은 배당수익률이 2011년 0.93%에서 2012년 0.82%, 지난해 다시 0.95%로 상승했다.

10대 그룹 중 배당수익률이 1% 이상인 곳은 지난해 SK, GS, 한화 등 3개 그룹뿐이다. GS그룹(8개사)의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GS그룹 상장 계열사들은 지난해 4000억원대의 적자를 냈지만, 1895억원을 배당해 1.19%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GS의 배당수익률은 2011년 1.56%에서 2012년 1.26%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한화그룹(6개사)은 2011년 1.79%, 2012년 1.42%, 지난해 1.12% 등으로 3년 연속 1%를 넘었다.

/김태균기자 ksgit@

market index <23일>

코스피 2028.32 (−0.61)

코스닥 563.14 (−1.79)

금리(국고채 3년) 2.46 (−0.05)

환율(원·달러) 1024.00 (−1.00)

뉴스&뉴스

지난 5월 '에잇세컨즈'를 취재 중인 열정기자단. /삼성 제공

삼성 대학생기자단 모집

●삼성그룹이 올해 하반기 활동할 대학생 열정기자단 4기와 대학생 서포터즈 4기를 모집한다. 다음달 4일까지 삼성의 영커뮤니케이션 포털인 '영삼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대학가에서 기업과 함께 하는 대외활동 '1순위'로 손꼽히는 삼성그룹 열정기자단은 대학생의 눈으로 삼성을 취재하는 '사내기자'이자 삼성의 대학생 '홍보대사'다. /김태균기자

취업시 인턴·자격증 유리

●취업하려면 인턴경험과 자격증 취득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익·학점 등의 스펙은 일정 수준만 넘기면 동일하게 평가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 144개사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합격 스펙· 평가방식'을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63.2%는 영어점수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어점수를 요구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56.6%)이 '일정 점수만 넘기면 동일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 합격자의 평균 토익성적은 746점이다.

채용시 학점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기업도 44.4%에 달했다. 일정학점만 넘기면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기업도 44.4%다. /이국명기자 kmlee@

연금복권520 제160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3조	672663
		4조	463570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217492
4등	100만원	각조	32883
5등	2만원	각조	962
6등	2000원	각조	49, 52
7등	1000원	각조	4, 5

출처 : 나눔로또 공식홈페이지(www.nlotto.co.k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하이일드펀드 인기, 국내로 확산될까

1500억원 순유입…해외선 과열 우려 시각

투기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특히 정부의 세제혜택과 국내 기업들의 잇따른 신용등급 하향으로 그동안 해외 하이일드 일색이던 투자 수요가 국내 시장으로 확산될지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일각에서는 글로벌 하이일드 투자가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23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펀드 중 회사채권형펀드와 일반채권형펀드에서 연초 이후 각각 430억원, 53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이탈한 가운데, 하이일드혼합형으로 1500억원 이상 자금이 순유입됐다.

해외에 투자하는 글로벌하이일드채권에 올 들어 94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온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하이일드채권형펀드의 운용 규모가 유명무실했던 것과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이승현 에프앤가이드 연구원은 "종전 국내 하이일드펀드는 설정액 자체도 소규모였으며 잇따라 해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하이일드 투자는 주로 정부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선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 끌기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다.

국내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전체 자산의 60%를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를 BBB등급 이하의 회사채나 코넥스 기업 상장사에 투자한다.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줄이 확대되는 셈이다.

또 최근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각종 이슈로 국내 대기업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강등하면서 국내 하이일드 시장이 성장할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됐다.

이대윤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등지의 하이일드 시장이 선도적으로 발전해 안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최근 한국의 하이일드 투자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 간의 인수·합병(M&A) 증가로 기업 인수자금 조달이 필요해지거나 경기불황기의 엄격한 신용등급 강등으로 펀더멘탈이 있는 기업이 투기등급으로 내려올 경우 하이일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금까지 해외 투자 일색이던 하이일드 시장이 한국에서도 활발해질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 연구원은 "다만 투자자들이 국내 하이일드채권에 쉽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면 관련 지수 개발이 필요하며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외에도 다양한 상품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외 하이일드 시장이 과열 국면에 돌입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손은정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회사채 발행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하이일드 시장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나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며 "올해 상반기 미국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78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손 연구원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저금리에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많이 오른) 가격 부담이 있는 데다 향후 일부 한계기업의 부도율 상승 가능성과 금리 상승에 대한 민감도 증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외환은행과 통합, 늦출 수 없다"

김종준 하나은행장

김종준(사진) 하나은행장이 외환은행과의 조기통합 추진에 대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외환은행과의 조기통합"이라고 말했다.

김 행장은 지난 22일 하나은행 임원과 지점장 등 850여명이 참석한 '2014년 하반기 영업전략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행장은 "하나·외환은행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행이 보유한 강점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선도은행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은행의 발전은 직원들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세 차례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경험이 있다"며 "이번 통합과정에서도 중요한 사항은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기자 minji@

KT, 게임업체와 협력 KT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카드 전략 게임 '하스스톤' 휴대폰 결제 KT 고객에게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KT 제공

창조경제 실현 첫 걸음은 'SW 강화'

최양희 미래부 장관, 'SW 중심사회 실현전략' 발표…인재 양성 초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브리핑 석상에서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 발표에 나섰다.

미래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SW 중심사회 구현을 꼽은 것이다.

최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를 SW 중심사회 실현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창조경제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이 SW 중심사회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것은 그의 이력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 장관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전자공학 석사, E.N.S.T. 대학원 전산학 박사 과정을 거쳐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를 지낸 인물이다. 그야말로 SW분야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할만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SW 중심사회 실현전략' 보고를 통해 최 장관은 'SW산업'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내부 혁신에만 중점을 둔 것에서 벗어나 모든 산업 및 국가 전반에 SW를 확산하기 위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장관은 "휴대전화를 꺼내서 망치로 부숴보면 부품도 나오고 다양한 하드웨어 제품들이 나올 것"이라며 "하지만 이것을 조립해서 작동했을 때 제품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부품이 아닌 그 무엇, 그것들 전부를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소프트웨어에 대한 광의적 해석이 필요하고 하드웨어나 서비스, 다른 분야에 융합하는 것들도 모두 소프트웨어로 봐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아주 좁은 범위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없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드웨어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곳들도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곳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SW 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미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SW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2017년,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정식으로 SW 교과목을 편성한다.

올 하반기에는 72개 초·중등학교를 SW교육시범학교로 지정한다. 내년에는 미래부·교육부가 공동으로 전국에 130개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사이버 영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도별로 소수 정예의 영재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대학에서는 졸업 후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실전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전공자 외의 학생들도 SW 수업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련된 주요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뒤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밖에 SW를 기반으로 한 산업 고도화와 'SW 제값 받기'를 위한 저작권 강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캠핑시즌 시트로엥 미니밴 '인기'

연비 좋고 수입차 유일의 7인승 디젤
2·3열 접으면 넓은 공간 만들 수 있어

캠핑·아웃도어 시장의 성장과 함께 미니밴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미니밴은 다른 세그먼트에 비해 공간 활용성이 좋고 수납공간도 다양해 캠핑 등 레저 활동을 위한 활용도가 높다. 최근에는 캠핑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러한 미니밴의 장점이 어필돼 수요가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눈에 띄는 미니밴은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와 기아자동차 올 뉴 카니발이다. 특히 그랜드 C4 피카소는 단연 돋보인다. 현재 판매 중인 토요타 시에나, 혼다 오딧세이, 크라이슬러 뉴 그랜드 보이저와 달리 수입차 유일의 디젤 미니밴이기 때문이다.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의 연비는 리터당 14km다. 경쟁하는 가솔린 미니밴의 연비가 리터당 8~9km에 머물고 있는 걸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디젤의 특징은 주행 성능에서도 나타난다.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는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Blue HDi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150마력, 최대토크 37.8kg·m의 힘을 발휘한다. 디젤엔진의 특성상 최대토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엔진회전 구간(2000rpm)에서 발생하는 점도 운전을 즐겁게 하고, 시트로엥 특유의 민첩한 핸들링도 갖추고 있다.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는 경쟁 모델들보다 차체가 작아 운전이 쉽다. 넓은 시야를 통한 개방감과 콤팩트한 사이즈가 편한 드라이빙을 돕는다. 앞 유리 아래쪽부터 이어지는 독특한 아치형 루프는 운전자에게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

그랜드 C4 피카소는 이전 세대와 전장이 같지만, 휠베이스를 2840mm으로 늘렸다. 덕분에 2열과 3열에도 넉넉한 공간을 마련해 7명이 탑승할 수 있다. 2열 바닥 밑에 적재공간을 설치하는 등 실내 곳곳에는 재치 있는 디테일을 더했다.

뒤 도어는 슬라이딩 방식 대신 스윙 방식을 택했다. 도어의 크기와 열리는 각도를 최적화하고 2열 시트를 앞으로 밀 수 있어 3열 승·하차도 편리하다.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는 인텐시브(Intensive)와 인텐시브 플러스(Intensive Plus)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각각 4290만원과 4690만원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

기업브랜드 이미지 리뉴얼

skylife
스카이라이프

KT스카이라이프가 개국 12년 만에 대표 브랜드 '스카이라이프'의 기업브랜드 이미지(BI) 리뉴얼을 단행했다. 이는 위성방송 플랫폼을 넘어선 통합 미디어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 리뉴얼의 가장 큰 특징은 디자인이다. 불필요한 상징과 장식을 배제한 워드마크 형태로 만들었고, 기존에 없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영문전용 서체를 따로 개발했다. 간결하고 독특한 글자 모양은 차세대 방송시장을 이끌어나갈 뉴미디어로서의 차별성을 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스카이'에서 연상되는 푸른색 이미지를 과감히 버리고 붉은색과 짙은 회색을 사용했다. 붉은 색은 고객을 향한 따뜻한 감성, 열정을 상징하고, 짙은 회색은 신뢰, 첨단 방송기술을 의미한다고 스카이라이프는 강조했다..

새 BI는 내달부터 안테나, 셋톱박스 등 모든 브랜드 표현물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이남기 스카이라이프 대표는 "스카이라이프의 강점은 양질의 고객 서비스와 HD방송에서부터 다가올 UHD전국방송까지 혁신을 거듭해온 앞선 방송기술"이라며 "이 두 가지를 녹여낸 새로운 BI와 함께 차세대 유료방송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재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희기자 ssh814@

LG,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 위로금

LG가 지난 17일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5명의 유가족에게 1억원씩 총 5억원의 위로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강원도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소속 故 정성철 소방령, 박인돈 소방경, 안병국 소방위, 신영룡 소방장, 이은교 소방교 등 5명의 소방관은 진도 팽목항 세월호 사고 현장 지원 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LG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다 운명을 달리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사명감을 기리고, 가족을 잃은 슬픔이 큰 유가족을 위로하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LG 관계자는 "구본무(사진) 회장을 비롯한 LG 최고경영진이 다섯 분의 영웅이 보여준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귀감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같이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ksgit@

국민연금, 500대 기업에 68조 투자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톱 3'

국민연금공단의 500대 기업 주식 투자 평가액이 6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삼성과 현대차 2개 그룹의 투자 지분 가치가 47%에 달했고, SK·LG·롯데 등 5대 그룹은 70%에 육박했다.

23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투자한 기업은 143곳이었고, 평가액은 6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삼성과 현대차 등 상위 2대 그룹이 46.5%(31조3700억원)였고, SK·LG·롯데를 포함한 5대 그룹이 65.6%(44조2600억원)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특히 삼성그룹은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이 20조6300억원으로 가장 컸다. 500대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6%에 달했다.

2위는 현대차 그룹으로, 8개 상장사가 국민연금으로부터 5% 이상 투자를 받았다.

현대차그룹의 국민연금 지분 평가액은 10조7400억원이고, 500대 기업내 비중은 15.9%다.

개별기업으로는 삼성전자의 국민연금 투자 평가액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 7.7%를 보유해 평가액이 15조3700억원에 달했다. /김태균기자 ksgit@

삼성 사장단 2주간 '휴가 모드'

삼성 사장단이 7월 말에서 8월 초 여름휴가에 들어갈 전망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23일 수요 사장단 회의 직후 "삼성 사장단의 하계휴가로 30일과 다음달 6일 수요 사장단 회의도 중단된다"며 "다음달 13일 수요 사장단 회의부터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건희 회장의 건강 문제와 상반기 실적부진까지 겹쳐 대부분의 삼성 계열사 사장들은 여름휴가를 반납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최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이 사장단 회의에서 직접 사장단에 휴가를 떠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 사장단은 2~3일 수준으로 국내에서 짧은 휴가를 다녀올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7일부터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에서 열린 '앨런&코 미디어 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귀국한 후 정상 집무에 나서고 있다. 특별한 휴가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영기자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경우

■칼럼 박민성 변호사

요즈음 삼성전자의 직원에게 발생한 백혈병과 관련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삼성전자와 백혈병 피해자 모임이 피해보상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요즘 산업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그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여러 질병이 과연 해당 근로자의 업무로 인해서 발병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고, 위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산재보상사건과 관련해서 진행했던 사건 중 '모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회사의 전액 지원을 받아 야간 MBA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 및 뇌출혈 등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형태, 근로시간, 기왕증 여부, 흡연 여부, 음주 여부 또는 횟수 및 음주의 정도 등 여러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현출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 상태에서 사실상 근로자가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모두 고려하면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평소 위와 같은 점을 유념해서, 자신의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진 02)592-2224

가전제품 속 히든기능 주목!

'포텐가전' 생활에 편리함 더하며 인기

최근 본연의 기능은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혁신적 기술로 제품 성능과 가치가 배가 되는 일명 '포텐가전'이 각광받고 있다. 포텐가전은 잠재성을 뜻하는 포텐셜(Potential)의 줄임말인 '포텐'과 가전의 합성어로 숨겨져 있는 뛰어난 기능을 지닌 가전을 뜻하는 신조어다.

대표적 포텐가전으로 삼성 청소기 '모션싱크'(사진)가 꼽힌다. 최근 실내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안전성이 강화된 제품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모션싱크는 탁월한 흡입력은 물론, 7단계 청정 클린 시스템이 탑재돼 청소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99.999% 차단해 준다.

모션싱크는 이런 탁월한 여과 성능으로 독일 인증 기관(SLG)에서 최고 등급을 취득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영국 알러지 협회(BAF), 한국 천식 알레르기 협회(KAF)에서도 인증을 받아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킨다.

매일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커피메이커 또한 전력 소모량이 많은 여름을 맞아 기본 기능 외 절전 기능을 탑재한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머신 '픽시'는 에너지 효율 등급 A급 머신보다 에너지 소비율이 40% 이상 적은 초절전 제품이다. 30초 안에 머신 예열이 가능해 1분이 채 되기도 전에 빠르게 커피를 즐길 수 있다. 머신 사용 후 9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전원 오프 기능'을 탑재했다. 또 예열이 완료되거나 물 탱크 용량이 부족할 때는 조명의 색깔 변화를 통해 알려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신선한 건강주스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필립스 미니 주서기 'HR1833' 역시 포텐가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HR1833은 간편한 착즙 기능뿐 아니라 1분 이내에 기기 세척이 가능한 '퀵 클린 기술'을 탑재해 설거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부들의 눈길을 끈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간편하게 착즙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 주전자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품 대비 최대 10% 더 많은 1.5ℓ 용량의 주스를 한번에 짤 수 있어 유용하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한화, 문화·예술 체험활동 한화는 전국 59개 사업장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 복지시설 아동들과 특별한 문화·예술체험활동을 펼친다. 23일 오전 한화 임직원과 초등학생이 경기도 '일산 아쿠아플라넷'을 방문했다. /한화 제공

삼성-신세계 "스마트폰과 패션이 만나다"

'갤럭시S5 광대역 LTE-A와 라이프스타일 쇼케이스'

삼성전자는 다음달 3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삼성 갤럭시 S5 광대역 LTE-A와 신세계가 함께하는 라이프스타일 쇼케이스 시즌2'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라이프스타일 쇼케이스 시즌2'는 기존의 정형화된 전시와 체험 형식을 벗어나 갤럭시S5 광대역 LTE-A의 혁신 기능을 실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NBDB(Never Been Done Before) 마케팅의 일환이다.

4층의 S 아몰레드 네이처(Nature)는 실제 꽃과 흙으로 연출한 조경으로 자연의 숲을 백화점 안에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힐링 공간이다. 소비자들은 화면을 만지면 옆의 다른 제품으로 날아 움직이는 나비 등 인터랙션 그래픽 영상을 실제 꽃향기, 새 소리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때 자연색을 그대로 구현하는 'S 아몰레드 WQHD'의 생생한 화질을 체험할 수 있다.

5층 광대역 LTE-A 폰 속도 특화존에서는 LTE보다 3배 더 빠른 속도를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속도와 비교해 보여 준다. 또 '커브드 초고화질(UHD) TV' 3대를 연결해 놀라운 속도감을 표현하는 고화질 영상을 보다 사실적으로 느끼게 한다.

'즐거운 나의 집'을 연출한 라이프스타일 라운지는 '셰프 컬렉션', '커브드 UHD TV' 등 최신 가전 제품을 함께 배치해 삼성전자의 혁신 모바일·가전 제품이 일상에 어우러진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이재영기자

회사 로고 문신으로 새기는 이유는?

글로벌 이코노미

미국 헬스클럽 고객 체중감량 등 목표 달성 기념… 기업은 무료 홍보효과 '톡톡'

회사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넘치는 걸까. 기업의 로고를 몸에 문신으로 새기는 직원과 고객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최근 영국 BBC 방송이 전했다.

미국 헬스클럽 체인 '애니타임 피트니스'의 설립자 척 런연(45). 그는 본사 고객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 있는 2000여 명이 회사의 로고를 문신으로 새겼다고 밝혔다.

애니타임 피트니스의 기업 로고는 달리기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본떠 만든 '러닝맨'이다. 이 문신을 가장 먼저 몸에 새긴 사람은 회사의 매니저다. 그의 문신을 본 몇몇 헬스클럽 회원들은 "멋지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똑같은 문신을 새겼다. 이후 로고를 몸에 새기는 회원이 지속적으로 늘자 회사 측은 보답에 나섰다. 러닝맨 문신 사진과 함께 몸에 회사 로고를 새긴 이유를 적어서 보내면 클럽 무료 이용권 등 100 달러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 것.

런연 대표는 "문신에 담긴 사연이 다양했다"면서 "회사에서 무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문신을 새기거나 단순히 브랜드가 좋아서 문신을 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체중 감량 성공,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등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한 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긴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문신을 새긴 충성 고객 덕분에 애니타임 피트니스는 엄청난 광고·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

브랜드 전문가 레베카 배트맨은 "문신은 한번 새기면 지우기 어렵다. 기업의 로고를 문신으로 새긴다는 것은 그만큼 업체에 친밀감을 느낀다는 것"이라며 "고객이 온몸을 던져 공짜로 회사를 홍보하고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드니 기업에서는 그저 감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런연 대표도 회사 로고를 몸에 새겨 '문신 마케팅'을 실천 중이다. 그는 고객과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지속한 덕분에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애니타임 피트니스는 전 세계 19개국에 2400개 프랜차이즈 매장을 가지고 있다.

애니타임 피트니스 덕분에 최근 다른 업계에서도 문신 새기기 열풍이 불고 있다. 영국의 장애물 경기 업체 '터프 머더'의 참가자 3000여 명도 기업 로고를 문신으로 새긴 것으로 알려졌다. 윌 딘 터프 머더 대표는 "참가자들이 팔과 다리 등에 터프 머더 로고를 새긴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ESCP 유럽경영대학원의 벤자민 보이어 교수는 이와 관련, "사람들이 문신을 새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특히 소속 그룹에 대한 일체감을 보여주고 싶어 문신을 새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보이어 교수는 "소신에 따라 문신을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은 브랜드의 이름이 인수 합병으로 바뀌거나 해당 업체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다"며 문신을 새기기 전에 좀 더 신중하라고 조언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배우세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구직자들이 취업할 때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애플 스마트시계는 '아이타임'?

미국 특허 등록

애플의 스마트시계 이름이 '아이워치'가 아니라 '아이타임'(iTime)으로 바뀔 전망이다.

미국 IT전문 블로그인 기즈모도는 애플의 스마트시계 관련 특허인 '손목에 차는 전자기기와 그를 위한 방식들'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현지시간) 전했다. 기기 명칭은 '아이타임'으로 특허번호는 제8787006호다.

특허 공고에 따르면 발명자는 앨버트 제이 골코, 매티어스 더블유 슈미트, 펠릭스 알바레스 등 3명이다. 신청서류 접수는 2011년이다.

특허 서류에 실린 그림을 살펴보면 아이타임은 모바일 기기에 무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손목 스트랩 모양이다. 배터리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등을 탈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보를 눈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다.

그동안 애플은 스마트시계 출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초 "새로운 범주의 제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만 내비쳤다.

하지만 이번 특허의 공개로 애플이 몇 년 전부터 스마트시계 개발 작업에 착수했고 연내에 '아이타임'을 시판할 것이란 업계의 전망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국명기자

팔콘 윙 도어 '테슬라 모델 X' 곧 시판?

생산라인 개조 중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새로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 X'가 조만간 시판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가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생산라인 개조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미국 일간지 새너제이머큐리뉴스는 테슬라가 21일(현지시간) 새너제이 근교 프리먼트 시에 있는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8월 4일에 정상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새 생산 라인 설치에 들어가는 자금은 대략 1억 달러(약 1000억원)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모델X'는 뒷문이 독수리 날개처럼 펼쳐지는 '팔콘 윙 도어(Falcon-Wing Doors)'가 적용된 모델이다. 두 개의 전기모터로 네 바퀴를 굴려 달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불과 4.4초에 주파하는 뛰어난 주행성능도 갖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테슬라는 이와 별도로 '기가팩토리'라는 이름을 지닌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기 위해 네바다, 뉴멕시코, 애리조나, 텍사스 등 후보지를 검토중이다. 기가팩토리의 건설비는 약 50억 달러(5조원)로 예상된다. /이국명기자 kmlee@

중국인 "서구상품 못 믿겠다"

'기한 지난 육류' 파문

중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가 유명 패스트푸드점에 공급된 사건 이후 중국에서 서구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산품과 비교해 서양 브랜드를 더 신뢰하느냐'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서양 브랜드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541명(9%)으로 국산품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자(5175명 · 91%)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남방도시보도 22일 '이번 사건이 서구 패스트푸드 기업의 식품 안전에 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일은 중국 내 외국 유명 브랜드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면서 "글로벌 브랜드가 중국 시장을 허술하다고 보고 중국 소비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선미기자

'군도' 강동원 하정우 액션 실감나는 이유

입체 음향 돌비 애트모스 기술 적용
사방을 감싸는 생생한 '진짜' 소리

관람객들이 '군도'를 상영중인 메가박스에서 돌비 애트모스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돌비 제공

20여명의 화적떼가 말을 타고 벌판을 달린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가 일고 말 발굽이 땅을 차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이 소리가 요상하다. 말이 앞으로 다가올수록 사운드가가 커지고 반대쪽으로 멀어지자 머리 뒷쪽에서 "다그닥 다그닥" 거린다.

강동원과 하정우가 대나무 밭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고 있다.

각각 대검과 도끼를 쓰는 두 주인공은 촘촘하게 들어찬 대나무 탓에 상대에게 타격을 입히기가 쉽지 않다.

무수히 많은 대나무가 두동강이 나면서 땅에 떨어진다. 대나무가 베일 때, 수직 낙하하는 순간, 땅에 떨어지는 찰나에 빚어지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대나무가 칼에 베일 때 나는 소리, 도끼에 잘리는 소리가 명확히 차이가 난다.

이곳은 23일 개봉한 '군도'를 특별한 방식으로 상영하는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 극장이다.

관객이 앉아있음에도 영화 속 사운드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돌비의 '애트모스' 기술 덕이다.

애트모스는 쉽게 말해 사방을 감싸는 사운드 효과를 만들어주는 음향 기술이다.

돌비의 첨단 소프트웨어와 제어기술, 애트모스에 최적화된 오버헤드 스피커의 결합으로 완성된다.

영화관의 스피커 수나 환경과 상관없이 사운드를 배치해 관객에게 실제 영화 속에 들어간 듯한 청취 경험을 전달하는 새로운 오디오 플랫폼이다.

3D·4D 영화가 시각과 촉감의 효과를 살리는 것이라면 애트모스 채택 영화는 3D 서라운드 입체 사운드를 강조하는 셈이다.

2012년 4월 첫 선을 보인 돌비 애트모스 기술은 2012년 6월 첫 영화가 개봉한 이래 12개국 120여개의 작품에 믹싱됐다.

할리우드 감독 가운데 '반지의 제왕' '킹콩'을 만든 피터 잭슨을 비롯해 '그래비티'를 연출한 알폰소 쿠아론, '색, 계'의 이안, '미션 임파서블'의 JJ 에이브럼스 등이 돌비 애트모스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 영화는 '미스터 고'와 '무명인'에서 애트모스를 믹싱했고 '군도'는 세번째 작품이다.

군도를 연출한 윤종빈 감독은 "돌비 애트모스 덕에 '군도'가 사실적인 입체음향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생생하고 강렬한 사운드의 액션 장면을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모바일게임 시장 1조2000억

카카오 등장으로 국내 2년간 광속 성장

국내 모바일 게임 산업의 성장을 이끈 '카카오게임'이 오는 30일 서비스 출시 2주년을 맞는다.

카카오톡의 소셜 네크워크와 개발사의 창의적 콘텐츠를 결합한 카카오게임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해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7월 7개 파트너와 10개 게임으로 출발한 카카오게임은 현재 230여개 파트너와 520개 게임을 제공하고 있다.

누적 가입자 5억2000만명, 월 평균 순이용자 200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모바일 게임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카카오게임은 국내 모바일 게임 산업의 성장에 일조했다.

2011년 4236억원의 시장 규모였던 모바일 게임은 카카오게임 출시해인 2012년 8009억원, 2013년에는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게임은 2014년 상반기 제휴 개발사를 포함한 연 매출 기준 전년 동기 대비 60% 늘어난 총 5600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박성훈기자

한미마이크로닉스 '시그너스 플러스' 미들타워

컴퓨터주변기기와 올인원PC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진화한 성능으로 새롭게 태어난 '시그너스 플러스+usb3.0'(사진) 미들타워를 선보였다.

미들타워는 데스크톱 PC의 본체 케이스를 의미한다.

사이드패널이 업그레이드된 이 제품은 내부 구성을 완전히 바꿔 더욱 편한 조립성과 통풍성을 극대화했다.

기존의 풀 스모크 아크릴 패널에서 ㄱ자 형태의 부분 아크릴패널로 변경됨과 동시에 VGA장착 부분에는 120mm 쿨러를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는 에어홀을 추가로 제공해 효과적인 쿨링을 구현하다.

내부 구조는 기존의 1자형태의 드라이브 베이에서 확장성과 조립성을 감안한 형태를 채택했다. 조립시 사용되는 케이블 정리홀의 위치와 사용이 더욱 효과적으로 배치됐다.

내비와 대동여지도

첨단 내비 맵 '2인1조' 노가다 완성품

예전에는 여러 명이 여행을 갈 때 길을 아는 사람이 맨 앞에서 차를 몰았다. 길을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은 앞차의 꽁무니만 쫓았다.

그러다가 교차로 신호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일행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일쑤였고 맨 앞차는 뒷차가 따라올 수 있게 도로 가장자리에서 비상등을 켠 채 대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뒷차는 보이지 않는다. 알고보니 비슷하게 생긴 차를 잘못 알고 따라갔고 일행은 반나절을 허비하곤 했다.

요즘은 이런 일을 상상하기 어렵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명이나 주소를 찍으면 가는 길을 상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전용 단말기가 없어도 티맵, 올레내비, 김기사와 같은 스마트폰용 앱을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시간 교통정보는 물론 도착 예정시간까지 알려주는 내비가 고마울 따름이다.

재미있는 점은 이처럼 스마트한 내비가 이른바 '노가다'로 완성된다는 것이다. 즉 내비에 들어가는 지도를 제작하는 일이 21세기 첨단 IT환경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다.

내비 맵 제작팀은 보통 2인1조로 구성된다. 한명은 운전을 하고 나머지 한명은 열심히 사진을 찍고 달라진 간판이 있는 지 확인한다.

일정이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밥먹고 용변 볼 시간도 없다는 후문이다.

오늘 광화문 일대에서 작업을 했다면 내일은 종로3가 지역을 둘러봐야 한다. 2인 1조의 내비 맵 제작팀들은 이런 식으로 전국을 활보한다.

이들이 일벌이라면 사무실에서 일벌이 보내는 데이터를 처리, 보관하는 여왕벌이 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데이터를 내비 맵에 최적화하는 작업을 하고 저장한다.

국산 내비의 뛰어난 성능에 그리 놀랄 필요는 없다. 우리는 1861년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의 후손이 아닌가.

대동여지도는 지금의 지도와 비교해도 정밀함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한다.

일제가 경부선 철도를 놓을 때 자체 지도를 만들었는데 대동여지도와 비교했더니 거의 비슷해 크게 놀랐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후 일제는 김정호가 전국을 3번이나 돌고 백두산을 8차례 오르내리며 지도를 완성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사실 김정호는 기존의 지도를 수정, 편집, 집대성했을 뿐이었다. 즉 조선의 뛰어난 지도 제작기술을 인정하기 싫어서 '김정호 1인 천재 만들기' 술수를 부린 셈이다.

대동여지도가 나오기 27년 전 김정호는 '청구도'라는 지도를 내놓았다. 예나 지금이나 지도 만드는 사람들은 '업데이트'가 숙명인 모양이다.

파인디지털의 내비 '파인드라이브'가 안전운전을 강조한 DMB광고.

해외 휴가 여행지 일정 맞춰 고르세요

짧으면 일본, 여유 있으면 뉴욕이나 유럽 추천

1년 중 직장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여름휴가. 이때는 마음 먹고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하지만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휴가를 준비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짧게는 2박3일에서 최고 9박10일 정도의 휴가를 갖는다. 휴가 일자에 맞는 여행지를 고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가까운 일본과 하와이 인기

먼저 휴가 기간이 짧다면 가까운 일본으로 떠나는 것을 추천한다. 짧은 비행시간과 저가 항공의 합리적인 가격, 먹거리와 놀거리가 풍부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 간사이 지방의 중심지인 오사카가 인기다. 식도락·온천·쇼핑 등 다양한 목적의 자유여행이 가능하고 대를 이어오는 식당이 많다.

5일 정도의 시간이라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환상적인 날씨와 남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하와이가 제격이다. 이색적인 해양 스포츠·대형 쇼핑센터·레스토랑이 즐비해 지루할 틈이 없으며 현지 투어도 쉽게 예약할 수 있다. 또 해변에서는 멋진 일몰을 보며 하와이 전통 춤인 훌라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휴가 길다면 뉴욕이나 유럽으로

긴 휴가를 얻었다면 미국의 뉴욕이나 유럽이 좋다.

먼저 뉴욕은 다양한 문화를 즐기기에 더없이 매력적인 도시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와 뉴욕 현대미술관, 자유의 여신상 등 대표적인 관광지를 돌아보며 라이온킹, 맘마미아 등의 뮤지컬을 브로드웨이 현지에서 감상할 수 있다. 또 7월과 9월 사이에는 독립기념일 세일, 노동절 세일 등 다양한 세일 행사도 이어진다.

앞뒤 주말을 붙여 총 9일간의 휴가가 생긴다면 무조건 유럽으로 떠나보자. 유럽여행의 중심인 런던에서 빅벤 아래로 흐르는 템즈강 주변의 야경을 보거나 파리에서 바게트를 먹으며 에펠탑을 바라보는 여유를 누릴 수 있다. 또 '꽃보다 누나' 방송 이후 추천 여행지로 꼽히는 크로아티아로도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

남국의 정취를 느끼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하와이. /소쿠리패스 제공

◆여행을 더욱 알차게 하는 방법은?

휴가를 자유여행으로 계획한다면 여행을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을 알아두는 것이 당연하다.

먼저 자신이 계획한 여행코스에 포함된 교통패스·뮤지엄패스·입장권 등을 국내에서 준비할 수 있는 트래블패스 전문 쇼핑몰 소쿠리패스가 유용하다.

소쿠리패스는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트래블패스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뉴욕의 경우 명소 6곳을 한 번에 방문할 수 있는 뉴욕시티패스도 준비돼 있다.

또 전세계 항공권 비교 사이트인 스카이스캐너에서는 출발지와 목적지만 검색하면 각 항공사의 항공권 가격을 비교할 수 있으며 기간을 설정하면 최저가 항공권 예약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검색을 통해 원하는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호텔스컴바인, 여행객들에게 아파트를 대여해 현지인처럼 유럽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웨이투스테이 등도 빼놓을 수 없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관광산업 이색 일자리 어떤게 있나

통역안내사 등 다양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국내 관광산업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성장은 매년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취업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에 취업 준비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등장한 관광산업의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한다.

/코스모진 제공

먼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유망 직종으로 가장 주목받는 '관광통역안내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공인자격증 시험을 거쳐야 하는 직종이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영어·일어·중국어 안내사의 급여가 많다. 특히 정부에서 중국어 전문 가이드 1000명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중국어 전문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의료관광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떠오르면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라는 전문 직종도 생겼다.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관광·어학·의료·서비스 등의 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가를 말한다. 이들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상품을 기획·마케팅하는 업무부터 외국인 환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국내 입·출국 관련 업무와 진료 지원, 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여행 플래너'는 여행의 전체적인 일정을 기획하는 직업으로 한 마디로 여행 전문 컨트롤러라고 할 수 있다. 또 '여행 마케터'는 여행사 및 여행상품을 개인 또는 기업에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황재용기자

한국관광 신규 브랜드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김종 제2차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한국관광 신규 브랜드로 'Imagine your Korea'를 개발해 공개했다.

2007년 'Sparkling Korea' 이후 7년 만으로 외국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한 비전을 담고 있다.

이 신규 브랜드는 지난 22일 한강 반포지구 세빛둥둥섬에서 관광업계 종사자와 배우 전지현 등 한국관광의 별 수상자, 주한 외교 사절 등이 참석한 한국관광 브랜드 선포식에서 공개됐다.

이 브랜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유구한 전통·역사는 물론 '세계 문화와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세련되고 창의적인 관광지'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문체부 관계자는 전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신규 브랜드 개발을 위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3주간 '내가 만드는 한국의 이미지, 한국관광 브랜드 영문 슬로건 온라인 공모전'을 실시했다. 응모작을 포함해 약 9130여 개의 슬로건 중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선정된 작품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오션월드에 가면 여름이 즐겁다!

할인 이벤트에 '오션콘서트' 이어져

대명리조트의 비발디파크 오션월드가 여름을 더욱 즐겁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먼저 오션월드는 다음 달 18일까지 골드시즌 온라인 패밀리 특가로 3~4인 가족을 위한 '골든 패밀리 위크'를 운영한다.

주중이나 주말에 관계없이 3인권(대인2·소인1)은 11만1000원에, 4인권(대인2·소인2)은 14만6000원에 균일가로 판매된다.

또 8월 3일까지는 미취학 아동의 입장권을 구매하면 부모 1명은 무료로 오션월드를 이용할 수 있는 '미취학 아동 1+1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오션월드에서는 다음달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오션월드 내 람세스 무대에서 인기가수들의 '2014 오션콘서트'가 열린다.

▲더원 ▲하이퍼보이즈 ▲에일리 ▲울랄라세션 ▲장미여관 등이 출연하며 콘서트 종료 후에는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슈퍼 익스트림 리버 불꽃축제가 이어진다. 게다가 이달 30일~8월 1일까지, 그리고 8월 6~8일까지 저녁 8시30분에는 야외 파도풀에서 DJ와 함께하는 '오션월드 나이트 판타지'가 펼쳐진다.

이외에도 대명리조트는 여름방학을 맞아 비발디파크 소노펠리체에서 8월 12~14일, 19~21일 2회에 걸쳐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승마체험 캠프'를 준비했다. /황재용기자

중독성 밑반찬으로 소문난 곳은 어디…

기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판매…입소문만으로 인기

"밑반찬 때문에 그곳에 간다고?"

기본으로 나오는 밑반찬이 고객을 끄는 요소가 된다면 어떨까. 밑반찬은 그 식당만의 노하우가 집약돼 있는 기본 메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흔한 밑반찬이 아닌 그 어떤 메뉴와도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내는 밑반찬은 흔치 않다.

자꾸 생각나는 중독성으로 메인 메뉴 못지 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한 맛집들의 밑반찬은 어떤 것이 있을까.

스쿨푸드에서는 전통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짱아치를 밑반찬으로 내놓는다. 제조 방법에 대해 특허까지 출원한 짱아치(사진 왼쪽)는 스쿨푸드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밑반찬이면서 핵심 재료이다. 이 곳의 대표 메뉴인 마리에서부터 장조림 버터 비빔밥·찌개라면 등 주요 메뉴의 재료로 들어가 맛을 극대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씹을수록 맛이 나는 특별한 식감을 위해 제조 공장을 운영, 비법이 담긴 양념을 직접 제조 관리하고 있다. 짱아치에 쓰이는 무 수확부터 생산까지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 씹히는 식감을 위해 특유의 절임 방식으로 7번 이상 가공하고 꿀을 가미해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감칠 맛이 특징이다.

이 밑반찬을 맛 본 고객들의 구입 문의가 이어지면서 현재 매장에서 상품화해 별도로 판매까지 하고 있다.

본죽에 가면 생각나는 밑반찬이 있다. 한 번 맛보면 금세 다 먹은 후 '저기요'를 외치게 된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밑반찬은 김치와 동치미·소고기 장조림·오징어 초무침 등 네 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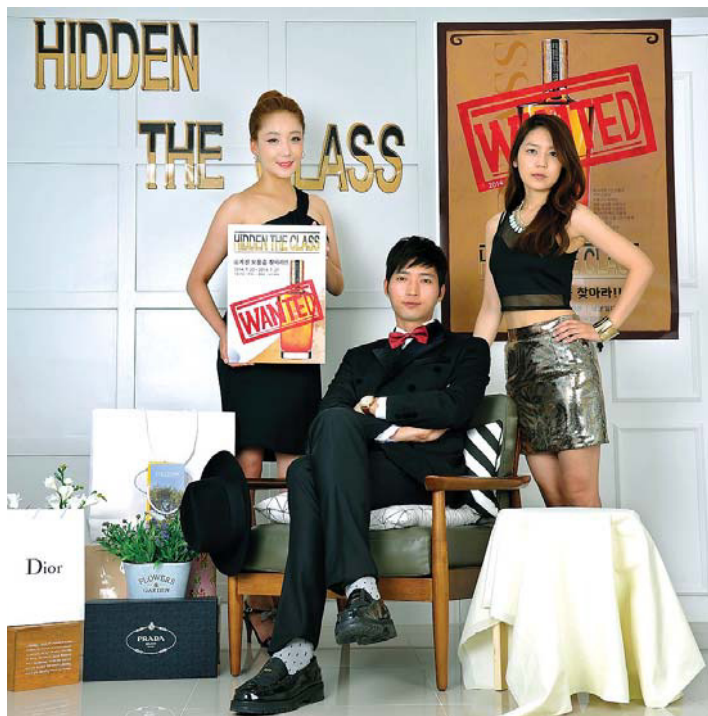
메뉴와 함께 각각의 종지에 담겨 제공되는 밑반찬은 보기에도 정갈하고 맛도 깔끔하다. 죽과 함께 먹기 편하도록 잘 익어 맛이 든 김치의 크기는 작게 자르고 오징어 초무침은 잘게 다지며 소고기 장조림(가운데)은 결대로 잘게 찢어져 있다.

가장 인기가 좋은 밑반찬은 오징어 초무침이다. 오징어 초무침은 무와 오징어가 잘게 다져있어 언뜻 보면 다대기 양념 같이 보이지만 꼬독꼬독 씹히는 식감이 좋고 감칠맛이 난다. 반찬 하나로도 밥 한 그릇이 뚝딱 없어진다.

재료들이 다져져 있어 음식을 씹기 어려운 환자나 노인, 입맛이 없는 사람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다. 온라인상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매장 방문 시에도 구매 할 수 있다.

족발 프랜차이즈인 김육갑은 족발 주문 시 모든 테이블에 서비스로 제공되는 푸짐하고 따끈한 만두국, 마지막으로 어디에도 없는 김육갑 만의 비법 양배추 절임(오른쪽) 등도 고객 유치에 한몫하고 있다.

양배추 절임은 독일사람들의 국민 술안주인 소시지와 슈바이네학센(독일식 족발)에 꼭 곁들여 먹는 '사우어크라우트'를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했다. 양배추 절임은 새콤달콤한 맛의 간장 소스에 송송 썬 고추도 올려 족발과 함께 먹으면 특유의 느끼한 맛을 잡아준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국제품평회 2관왕 수상 기념 행사 하이트진로의 젊은 감각의 위스키 '더 클래스'가 국제주류품평회 2관왕 수상을 기념해 23일부터 5일간 '히든 더클래스' 이벤트를 광화문·여의도 등에서 열고 해외여행 상품권·특급호텔 숙박권·워터파크 이용권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하이트진로 제공

아빠·조부모 위한 육아 클래스 눈길

문화강좌 등 개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육아가 엄마만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아빠와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육아 클래스'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한방 유아 스킨케어 브랜드 궁중비책은 지난 12일 '아빠와 함께하는 베이비 마사지 클래스'를 진행했다. 이 브랜드는 엄마와 아기의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스킨십을 테마로 한 '스킨십의 기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아빠를 위한 클래스를 열었다. 이 클래스는 아기 마사지를 통해 초보 아빠와 아기 간 친밀감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여름철 열대야로 잠 못 드는 아이 피부를 위해 궁중비책의 제품을 활용해 3개월~12개월 아기의 아빠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마사지법을 공개했다. 이 행사엔 15명 모집에 약 200여명의 아빠가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벤트코리아는 지난 5월 28일 예비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문화강좌 '해피플 맘앤 베이비'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9년 '해피플 맘앤 베이비' 시작 이래 처음으로 예비 엄마와 조부모가 함께 육아 정보를 얻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부모 교육 전문가 임

영주 박사가 '조부모 육아법'에 관해 쉽게 알려주는 강의와 함께 할머니·할아버지가 보내는 '아기에게 편지쓰기', 국내 수준급 연주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태교 음악 연주회' 등의 프로그램이 열렸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커피보다 싼 수입 돈육

홈플러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수입냉동삼겹살을 1kg당 7800원에 판다. 100g당 780원 수준으로 동일 중량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155원, 종가집 포기김치 890원보다 저렴하다. 이 기간 수입냉장 목심과 삼겹살도 각각 100g당 1080원, 1180원 초특가에 내놓는다. 한편 최근 국내산 돈육 가격 폭등으로 대체제인 수입산 돈육의 비중은 무려 33.8%를 기록했다. /정영일기자

"포장상품 최대 40%할인 바캉스 대축제"

강강술래, 알뜰여행·캠핑 필수품 파격가 선봬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다음달 10일까지 테이크아웃 육류세트와 가정편식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알뜰 바캉스 대축제'를 벌인다.

먼저 전 매장과 쇼핑몰(sullaimall.com),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행복 세트(한우불고기1kg+돼지양념1kg)와 사랑 세트(한우불고기1kg+LA갈비900g)는 4만원, 정성플러스 세트(한돈양념1kg+돼지양념1kg)는 4만5000원, 실속플러스 세트(한우불고기1kg+한돈양념1kg)는 4만8000원에 저렴하게 판매한다.

왕양념갈비(2대·560g)와 술래양념(8대·520g) 한우불고기(1kg)로

구성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메이징 세트도 8만5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배송비(3000원)를 추가하면 바캉스세트 5종 모두 휴가지까지 택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단, 도서산간 및 섬 별도 문의해야한다.

또 전 매장에서는 영양간식이나 술안주로 좋은 테이크아웃 가공식품 전 품목을 40% 할인 판매한다. 갈비맛쇠고기육포(6봉)는 2만1600원, 한우사골곰탕 소용량 세트(350㎖·5팩·10인분) 1만8900원, 대용량 세트(800㎖·5팩·15인분)는 3만2400원이다.

캠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칠절한우떡갈비(360g)는 1만2000원,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 7200원, 모짜렐라돈가스(720g) 1만800원, 통등심돈가스(720g) 9000원 등 정상가보다 4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이밖에 행사기간 동안 전 매장에서는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뉴하이트 맥주를 한 병 시키면 한 병을 더 주는 '열대야 극복 1+1 이벤트'도 함께 벌인다. /정영일기자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In Collaboration with RobecoSAM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선정 – 동부화재

운전중 교통상해사망까지 보장하는 보험 –

생명보험이에요? 운전자보험이에요?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면 얼마나 보장하나요?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시
3억원 일시금 지급
(특약 가입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면 얼마나 보장하나요?

자동차 부상치료비
14등급(**5만원**)~1등급(**400만원**)**지급**
(특약 가입시)

매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지는 않나요?

갱신·할증없이
월 11,990원
(20년 만기 20년 납, 월납, 자가용운전자 기준)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운전자종합보험 1404

● 보험료 예시

[20년만기 20년납, 월납, 자가용운전자기준, 단위 : 원]

구분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					
				30세남	30세여	40세남	40세여	50세남	50세여
보통약관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보통약관)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1,000만원	102	71	102	71	102	71
특별약관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일시금으로 보험가입금액 지급	30,000만원	4,350	2,190	4,350	2,190	4,350	2,190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만원	554	704	554	704	554	704
	자동차부상치료비 II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별 5만 ~ 400만원 지급	400만원	1,656	734	1,656	734	1,656	734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피해자 사망, 피해자 중상해, 중대법규위반사고)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	3,000만원	2,275	2,274	2,275	2,274	2,275	2,274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실손)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 또는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만원	117	117	117	117	117	117
	벌금(실손)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000만원	293	293	293	293	293	293
보장보험료 합계				9,347	6,383	9,347	6,383	9,347	6,383
적립보험료 합계				2,643	5,607	2,643	5,607	2,643	5,607
납입보험료 합계				11,990	11,990	11,990	11,990	11,990	11,990

예시보험료는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벌금(실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비용담보는 음주,무면허 운전중 사고나 뺑소니, 영업용/경기용 차량 운전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6종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6종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6종건설기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

[20년만기, 20년납, 상해1급, 남자 40세, 자가용운전자, 월납11,990원, 단위 : 원, %]

경과연수	납입보험료	예상 해지환급금(률)					
		최저보증이율		표준이율		표준이율 × 1.2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143,880	–	0.0%	–	0.0%	–	0.0%
3년	431,640	45,230	10.5%	47,250	10.9%	47,450	11.0%
5년	719,400	100,310	13.9%	106,040	14.7%	106,630	14.8%
7년	1,007,160	156,990	15.6%	168,550	16.7%	169,750	16.9%
10년	1,438,800	246,050	17.1%	271,290	18.9%	273,970	19.0%
16년	2,302,080	436,460	19.0%	511,380	22.2%	519,690	22.6%
20년	2,887,600	573,050	19.9%	701,170	24.4%	715,780	24.9%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금 및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1.5%), 「표준이율(3.5%)와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및 「표준이율×1.2와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1304(월변동금리, 2014년 04월 현재 3.7%)입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304)을 적용하여 산출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하므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었기에 해지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80-249-7000

• 계약자는 청약을 한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철회가능하며 계약 청약 이후 보험약관 미전달, 청약 미녹취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 등 비례보상 담보의 경우 이전에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4-0614호(2014.3.31)〉

착한 먹거리 만드는 가전제품

직접 조리 과정에 참여해 위생에도 안심

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전 제품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가전 제품은 한 번 구매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조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인기 요인이다.

필립스 '디지털 에어프라이어'는 특허 받은 에어스톰 기술로 뜨거운 공기를 빠른 속도로 순환시켜 추가 기름 없이도 식재료 내의 기름을 사용해 튀김·베이킹·구이 등 다양한 요리를 조리한다. 전통 튀김 방식에 비해 지방 함량을 최대 90% 줄여 건강한 튀김을 즐길 수 있다. 디지털 터치 패드가 장착돼 요리 시간과 온도를 1분, 1℃ 단위까지 세밀하게 설정하고 더블 레이어 악세서리로 내부 공간을 2개의 층으로 나눠 서로 다른 재료를 섞이지 않게 하고 동시에 조리가 가능하다.

돌(Dole) 코리아의 '요나나스'는 특허 받은 기술로 바나나·딸기·블루베리 등 냉동 과일로 손쉽게 과일 디저트를 만드는 가전 제품이다. 냉동 과일을 넣고 눌러주기만 하면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다. 식이섬유, 비타민 등이 그대로 보존될 뿐만 아니라 유제품이나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은 저칼로리 건강 디저트를 집에서 쉽게 만드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구입 후 제때 먹지 못하고 남은 과일을 그대로 냉동 보관만 하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바디프랜드의 '맘스밀'은 영양소 손실을 줄여 신선하고 건강한 현미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정용 도정기이다. 일반적으로 벼를 수확하면 도정 과정을 거쳐 소비자가 먹는 쌀의 형태로 시중에 유통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벼 알곡이 갖고 있던 영양소가 손실된다. 맘스밀은 0(현미)~13분도(백미)까지 분도 별로 간편하게 도정해 영양소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현미를 꺼려하는 소비자들도 단계별로 적응할 수 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여행가방 "홀쭉해졌네"

바캉스 키워드 '슬림' 다기능 아이템 인기

휴가의 즐거움은 짐 꾸리기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막상 짐을 챙기다보면 여행가방은 터져나가기 직전. 올여름 바캉스 키워드는 '슬림'이다. 뚱뚱한 여행가방을 '홀쭉'하게 만들어 줄 다기능의 신발·의류 등이 휴가족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멀티형 아이템 하나면 끝!

매번 휴가지에서 갈아신을 신발을 따로 담아갔다면 이번 시즌에는 '멀티형 슈즈' 하나만 챙기면 된다. 휠라의 '아쿠아 스피드'는 낮은 경사나 비포장길을 가볍게 걸을 때 신는 '트레일화'와 계곡·물에서 신는 '아쿠아슈즈'의 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제품이다. 특히 캐주얼복장에 어울리는 스타일로 여행을 떠날 때부터 신을 수 있다.

유니클로의 여성용 에어리즘은 제품 안쪽에 브라컵이 달려있어 별도로 속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브라탑'라인을 선보였다.

장시간 이동하는 피서객을 위한 독특한 가방도 눈길을 끈다. 쌤소나이트의 '마시멜로'는 의자로 변하는 여행가방이다. 평소 캐리어로 사용하다 눕히면 의자처럼 앉을 수 있다. 성인 남성이 앉아도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됐다고 쌤소나이트은 설명했다.

◆패커블 제품으로 가방 부피 줄이기

작고 가벼워 휴대가 간편하고 가방에 '쏙' 들어가는 '패커블' 제품도 인기다.

플랫슈즈 브랜드 요시삼라는 신발을 반으로 접어 파우치에 보관할 수 있는 '폴딩슈즈'를 선보였다. 여행 가방 공간을 적게 차지할 뿐 아니라 짐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어 유용하다.

변덕스러운 날씨에는 우산보다 패커블 레인코트가 간편하다. 에이글의 '그래핀 코트'는 비가 올땐 우의로, 바람이 심할 땐 바람막이로 활용할 수 있다. 입지 않을 땐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면 된다.

섀르반은 방풍·방수·투습 기능이 우수한 아동용 '패커블 판초'를 출시했다. 판초 스타일의 우비로 패커블 주머니가 따로 있다.

휠라 관계자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똑똑한 제품들을 선택하면 보다 간편하고 실속있는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땀·물에도 눈화장 그대로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브로우는 필수

신나게 물놀이를 했을 뿐인데 눈밑은 검게 물들고, 눈썹은 사라졌다. 이처럼 땀과 물은 공들여 그린 눈썹과 아이라인을 망가뜨리기 십상이다. 뷰티업계가 여름철을 맞아 땀과 물에도 끄떡없는 '워터프루프 아이템'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베네피트의 '데아 리얼 푸쉬-업 라이너'는 매트한 워터프루프 블랙 젤 성분으로 땀과 피지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사선 모양의 팁이 눈꺼풀 곡선을 따라 아이 라인을 고르게 그려 깔끔한 눈매를 완성한다. 이 업체는 고객들이 강력한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색 이벤트도 마련했다. 26~27일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열리는 '물총 축제'에서 참가자들에게 직접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예정이다.

마죠리카 마죠르카의 '래쉬 킹'은 땀과 눈물에 강한 워터프루프 타입의 마스카라로 오랜 시간 깔끔한 눈화장을 유지시켜준다. 롱래쉬효과로 늘어나는 마스카라 액은 아찔한 속눈썹을 연출한다.

맥은 '워터프루프 브로우' 세트 컬렉션을 내놨다. 눈썹결을 정리할 수 있는 마스카라 형태부터 없는 눈썹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젤크림 타입 제품까지 다양하다. 땀과 습기에 강하고 쉽게 번지지 않아 '모나리자' 될 염려가 없다.

/박지원기자

"무료 항공권 받아볼까?" 카페베네는 '카페베네와 함께 ASIANA 380타고 LA가자!' 이벤트를 다음달 31일까지 벌인다. 응모는 압구정갤러리아점·신사역사거리점·강남대로점 등에서 인증샷을 찍어 아시아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된다. 추첨을 통해 무료항공권, 모바일기프트콘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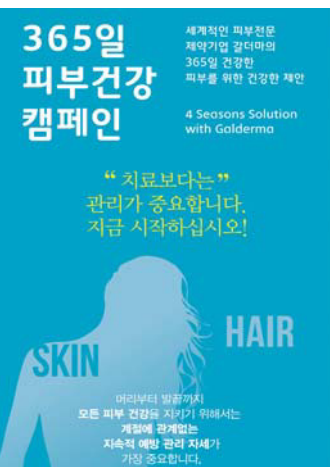
/카페베네 제공

"해수욕장 피부 질환 걱정마세요"

갈더마코리아, 캠페인

갈더마코리아(대표 박흥범)가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갈더마와 함께 하는 365일 피부건강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계절에 관계없이 피부 건강을 위한 꾸준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회사는 여름철 해수욕장에 오래 머무르면 각종 피부질환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

회사는 먼저 피서객을 대상으로 'Hair, Skin, Nail'을 주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한 피부 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와 자가 관리 습관의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2인 1조가 돼 물풍선을 맞춰 파트너를 떨어뜨리는 드롭 타겟, 풍선다트 등 피서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회사는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선케어 부스에서는 갈더마코리아의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한편 갈더마코리아는 겨울 시즌 이벤트를 시작으로 잠실 야구장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봄 시즌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metro entertainment

"우리 사랑 '로코'보다 더 매력적"

KBS2 수목극 '조선 총잡이' 개화기 연인

이준기♥남상미

"'괜찮아…' '운널사'보다 쫄깃한 멜로"
"땀 흘린 남자 섹시…더우면 치마 들어"

배우 이준기와 남상미는 KBS2 수목극 '조선 총잡이'에서 풋풋한 개화기 커플을 연기하고 있다. MBC 드라마 '개와 늑대의 시간' 후 7년 만의 재회다. 작품은 탄탄한 구성과 배우들의 호연, 총과 칼의 대결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인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2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조인성-공효진·장혁-장나라 커플과 경쟁한다.

이준기(이하 이): 개화기 격랑의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의 사랑에 시청자가 공감했으면 좋겠다. 경쟁작인 '괜찮아 사랑이야'와 '운명처럼 널 사랑해' 모두 로맨틱 코미디고, '조선총잡이'는 사극이다. 독보적인 장르가 오히려 강점이다. 개인적으로도 알콩달콩한 사랑보다는 심장이 쫄깃해지는 사랑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

남상미(이하 남): 4회까지는 알콩달콩했다. 현재 박윤강(이준기)은 정체를 숨기고 정수인(남상미)은 알아내려고 한다. 긴장감 있고, 사랑해도 표현을 못 하니까 더 간절하다. 극이 진행될수록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거고 절정에서 '팍' 터트리는 감정이 인상적일 거다.

◆날씨가 더워 한복과 양복이 불편하겠다.

이: 원래 무더위에 뛰는 걸 좋아한다. 그렇다 보니 액션을 찍다 보면 미친 사람처럼 하고 있다. 또 땀 흘린 남자를 섹시하다고 생각한다. 옷이 젖어서 시스루룩이 되니까. (웃음) 보통 여름 촬영이라고 하면 지쳐서 힘들 거란 편견이 있는데 오히려 좋은 점이 많다. 몸이 전체적으로 이완되고 부기도 빠져 얼굴이 예쁘게 나온다. 화면에 이채로운 여름 색감을 담을 수 있어 영상 보는 재미도 있다. 요즘 여행 하는 기분이다.

남: 편하게 촬영하고 있다. 한복 속에 시원한 운동복을 입고 있어서 더우면 치마를 들고 있다. (웃음) 오히려 남성 출연자들은 부츠를 신고 얼굴만 내놓은 의상을 입어야 하니 더 고생이다.

◆총과 칼을 모두 다룬다.

이: 육체적으로는 칼 액션이 더 힘들다. 총의 경우 촬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한번 쏘면 바로 죽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짧은 액션인데 특수 포약을 일일이 설치 해야 한다.

◆박윤강은 복수를 위해 일본인 한조로 위장하고 있다. 누가 더 이준기스러운가.

이: 박윤강 쪽이다. 능글맞고 정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쁜 남자, 도시적인 느낌이 나는 한조처럼 살고 싶다. 제 모습을 감추고 제2의 삶을 꿈꾼다.

◆제2의 삶? 현재 배우로서 힘든가?

이: 아니다.(웃음) 제2의 삶을 꿈꾸는 건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이다. 인간 이준기로 산다면 더 자유로울 거다. 배우로선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니까 인간 이준기를 잊게 된다. 또래 일반 남자들처럼 당당하게 연애하고 미친 사람처럼 놀고 싶을 때가 있다.

◆데뷔 후 첫 사극 도전이다.

남: 현대극보다 감정 기복이 많다. 정수인은 기존 사극에서 그려지던 여성이 아니다. 행동은 차분하기보다는 톡톡 튀고 말투도 격이 높지 않다. 초반에는 고민했다. 그러나 100% 대본을 충실하게 소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조선 시대 여인이지만 진취적인 게 관건이다.

◆제2막이 올랐다. 관전 포인트는?

이: 지금까지는 등장 인물의 개인사가 다뤄졌다. 박윤강의 경우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다. 어제(21일) 11~12회 대본을 봤는데 숨이 턱까지 찼다. '다 찍으면 대박'이라고 느꼈다. 액션은 액션대로, 갈등은 갈등대로 극으로 치달아 터지기 시작한다. 개인사 이상의 걸 보게 된다. 역사적 사건과 정치적 음모, 실재와 가상이 함께 그려진다.

◆원하는 결말은?

남: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으면 한다.

이: 작품에서 박윤강은 시대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의 성장이 시청자에게 사랑, 아픔, 혼란의 감정을 선사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주인공이 죽는 결말을 선호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출연한 영웅물은 다 열린 결말이었다. 감독에게 '제발 멋있게 죽여달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현실이 우울한데 주인공까지 죽으면 희망을 잃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해는 가지만 아쉬운 부분이다.

/부여=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디자인/최송이

카라 4인 체제 컴백 티저 공개

4인조로 재편한 걸그룹 카라(박규리 한승연 구하라 허영지)가 화려한 가요계 귀환을 알렸다.

지난해 정규 4집 '풀 블룸'이후 1년 만의 신보다. DSP엔터테인먼트는 23일 카라 공식 홈페이지에 카라의 6번째 미니 앨범 '데이&나이트' 티저 이미지를 전격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티저 이미지에는 '데이&나이트'라는 글자와 함께 상단에 피어있는 꽃 봉우리와 하단에는 태양과 달을 의미하는 문양을 배치했다.

이는 새 앨범의 콘셉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카라 멤버가 어떤 이미지의 곡을 공개할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컴백을 선언한 카라는 향후 순차적으로 콘텐츠를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양성운기자

카라 '데이 & 나이트' 티저 이미지.

원더걸스 예은 솔로 데뷔

예고 영상서 파격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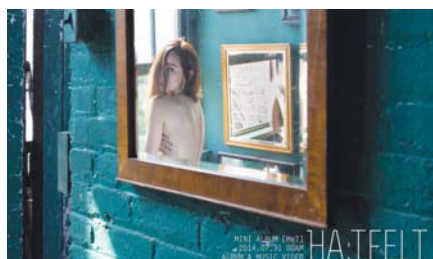
원더걸스 예은이 파격 티저로 솔로 데뷔 소식을 알렸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23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예은의 신곡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JYP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와 핫펠트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영상 재생과 함께 등장한 예명은 핫펠트다. 핫펠트는 예은의 필명으로 하트펠트(Heartfelt: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온)라는 단어에 중의적으로 뜨거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진심이 담긴 음악' '마음이 느끼는 음악'을 뜨겁고 새롭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예은은 전에 없던 야릇한 섹시미를 보여줬다. 비를 맞은 예은은 젖은 옷이 몸에 밀착되며 늘씬한 몸매 라인을 드러냈다. 영상 중반부에 샤워 장면을 삽입하며 파격 노출도 감행했다. 예은은 속옷 끈을 풀고 바지를 벗었다. 이어 샤워실로 들어가 매끈한 등을 노출했다.

예은은 샤워 중 허밍으로 신곡을 불렀다.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와 빗소리가 어우러지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동안 원더걸스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전혀다른 느낌으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핫펠트는 삶의 기쁨, 슬픔, 그리움 등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 첫 번째 미니 앨범 '미(Me?)'를 오는 31일 타이틀곡 뮤직비디오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예은 '핫펠트'로 솔로데뷔.

'악동' 블락비 로맨티스트 변신

강렬함 빼고 사랑스럽고 귀여움으로 무장

그룹 블락비(사진)가 로맨티스트로 돌아왔다.

강렬하고 파격적인 비주얼로 음악 팬들을 사로잡았던 블락비는 네 번째 미니앨범 '헐(HER)'을 발표하고 이미지 변신을 꾀했다. 강렬하고 자극적이었던 과거 모습과 달리 사랑스럽고 귀여운 매력을 한껏 드러냈다.

컴백을 앞두고 블락비는 23일 광장동 악스코리아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타이틀곡 '헐'의 무대를 공개했다. 이날 무대에서 블락비는 걸그룹 못지 않은 핑크 빛 컬러 의상으로 눈길을 끌었다. 멤버 피오는 핑크색으로 염색해 자신만의 개성을 확연히 나타냈다.

지코는 "이번 앨범을 작업하면서 이미지를 바꾸고 싶은 욕구가 강했다"며 "멤버들이 변덕이 심해서 금방 질리는 경향이 있다. 옷도 새로운 스타일로 갈아입고 싶어서 록 블루스라는 장르에 도전해봤다"고 설명했다.

타이틀곡 '헐'은 사랑이 주제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여인을 향한 구애의 메시지를 담았다. 록 블루스 기반의 경쾌한 리듬감과 중독성 강한 기타 리프가 돋보인다.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재미난 노래 제목으로 기존의 블락비와는 다른 차별화를 꾀했다.

비범은 "요즘 강렬한 힙합 리듬을 기반으로 한 음악이 많다. 그런 음악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며 "여성을 위한 사랑스러운 노래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귀엽고 상큼한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블락비는 '헐'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새로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 첫 번째 트랙에 담긴 '보기 드문 여자'는 가장 완벽하고 매력적인 흔하지 않은 여인에게 바치는 노랫말이 인상적이다. 세 번째 트랙에는 블락비의 메인보컬 태일의 솔로 곡 '이제 날 안아요'가 수록됐다. 이 곡은 지난 정규 1집에 수록된 태일의 첫 번째 솔로 곡 '넌 어디에'를 작곡한 태음이 쓴 감성 발라드다.

사랑스럽고 달콤하게 돌아온 블락비가 올 여름을 로맨스로 수놓을 수 있을까.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헨리

리디아

원곡보다 눈길 끄는 커버

리디아, 태양 '눈,코,입' 불러… 헨리 '판타스틱' 현악 연주

태양과 헨리의 신곡이 색다른 편곡으로 원곡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태양의 정규 2집 타이틀곡 '눈,코,입'은 2개월째 차트 정상에 있으며 동료 가수들이 새롭게 편곡한 버전으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악동뮤지션과 에픽하이의 타블로가 새로운 버전의 '눈,코,입'을 선보인 데 이어 리디아가 또 다른 커버곡을 23일 오후 9시 발표한다.

리디아는 YG엔터테인먼트의 여성 작곡가 겸 프로듀서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NE1의 '두 유 러브 미', 이하이의 '1,2,3,4'와 '잇츠 오버'를 공동작곡했다. 지난해 9월 지드래곤이 발표한 솔로 2집에서는 'R.O.D'의 피처링을 맡아 빼어난 랩과 보컬 실력을 보이기도 했다.

'눈,코,입'은 태양의 감성 보컬과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멜론 5주 연속 1위 등 각종 온라인 음원차트 정상, 4개 방송사의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8개의 1위 트로피를 석권하는 등 인기롱런을 하고 있다.

헨리는 이날 미니 2집 타이틀곡 '판타스틱'의 현악 4중주 버전을 공개했다.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다음 스토리볼에 공개된 '헨리의 리얼뮤직 : 유, 판타스틱' 3화 '판타스틱'에는 2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라·첼로 등으로 연주한 스트링 콰르텟(현악 4중주) 버전이 담겨 있다. 헨리의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바이올린 독주는 물론, 4대의 현악기가 선사하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눈길을 끈다.

현악 4중주 버전은 빈티지한 사운드와 대중적인 멜로디의 원곡과는 확연히 다른 매력이 있다.

매주 수·금요일 연재되는 '헨리의 리얼뮤직 : 유, 판타스틱'은 그 동안 예능에서 볼 수 없었던 헨리의 아티스트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유순호기자 suno@

OCN '신의 퀴즈 4'.

JTBC '유나의 거리'.

tvN 새 수요드라마 '황금거탑'.

'NO 스트레스' 드라마 뜨고있다

로코·막장 홍수 속 '유나의 거리' '신의 퀴즈4' '황금거탑' 눈길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와 안방극장의 단골 소재 막장 코드에 지친 시청자들이 스트레스 없는 드라마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서울의 달(1994)'의 김운경 작가가 대본을 맡아 '2014년 판 서울의 달'로 불리는 JTBC 월화드라마 '유나의 거리'는 서울 창덕궁 근처 다세대 주택에 모여 사는 하류 인생들의 희노애락을 그리고 있다. 극중 인물들은 소매치기·백수·공사장 인부·전직 조폭·배우 지망생 등 어딘가 조금씩 부족한 하류 인생들이다.

다른 드라마에선 악역으로 그려졌을 만한 인물들이지만 이 드라마에선 아니다. 김수현 작가가 "그(김운경 작가)의 작품 창고에는 선하고 맑은 인간들만 있어서 좋다"고 칭찬할 정도로 '유나의 거리'에서 절대 악인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사연과 아픔이 존재할 뿐이다.

상처받은 도시 영혼들이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습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진다. 착한 드라마로 입소문을 탄 '유나의 거리'는 지난 22일 방송 시청률이 2.9%(닐슨코리아, 수도권 유료가구 광고제외 기준)를 기록하며 종편 드라마치고 높은 성적을 나타냈다.

네 번째 시즌을 맞이한 OCN 일요드라마 '신의 퀴즈'는 오랜 방영 기간만큼이나 많은 마니아를 거느리고 있는 메디컬 범죄 수사극이다. '신의 퀴즈'는 지상파에선 보기 어려운 의학 수사물 장르답게 독특한 소재와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 전개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주인공 한진우(류덕환)는 법의관 사무소의 천재 의사로 미궁에 빠진 살인 사건을 명쾌하게 풀어내며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준다.

이번 시즌부터 한진우와 경찰청 특수 수사계 여형사 강경희(윤주희)의 관계가 발전해 로맨스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알콩달콩한 재미까지 더해졌다.

'신의 퀴즈'의 로맨스가 특별한 이유는 삼각관계나 악녀 등 대부분의 로맨틱 코미디에 등장하는 갈등 요소가 없다는 점이다. 한진우와 강경희의 애정 관계는 스릴 넘치는 전개 속에 시청자들이 잠시 긴장을 풀 수 있는 편안한 재미 요소다.

'거탑 시리즈'의 제작진과 출연진이 다시 한 번 의기투합한 tvN 새 수요드라마 '황금거탑' 역시 신선한 소재로 시청자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푸른거탑'이 군대 이야기로 군(軍) 콘텐츠의 부흥을 이끌었다면 '황금거탑'은 농촌 드라마의 부활을 노린다.

현재 농촌을 소재로 방영 중인 드라마는 KBS1 '산너머 남촌에는 2'가 유일하다. '산너머 남촌에는 2'가 '전원일기'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의 계보를 잇는 잔잔한 농촌 드라마라면 '황금거탑'은 영농 대출을 노리고 위장 귀농한 가짜농부 이용주와 '거탑마을'의 개성 넘치는 농부들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또 인력난, 노총각,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등 우리 농가가 실제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를 녹여내 재미 속에 날카로운 비판의식도 제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엑소 첸 첫 솔로곡 발표

그룹 엑소의 첸이 첫 솔로곡 '최고의 행운'을 발표했다.

첸이 부른 SBS 새 수목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OST 파트1 '최고의 행운'은 드라마 첫 방송일인 23일 각종 음원사이트에 공개됐다. '최고의 행운'은 웅장한 30인조 스트링과 파워풀한 R&B 리듬이 가미된 팝 R&B 장르의 곡으로, 첸이 데뷔 이후 처음 부르는 OST이자 첫 솔로곡이다.

또 '최고의 행운'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행운이라고 표현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랫말로 여심을 자극할 전망이다. 또 드라마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주인공인 공효진과 조인성의 해변 데이트 장면과 함께 첸이 부른 '최고의 행운'이 살짝 공개되면서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엑소 첸이 첫 OST 주자로 나선 '괜찮아 사랑이야'는 추리소설 작가 장재열(조인성)과 정신과 의사 지해수(공효진)의 러브 스토리를 담은 로맨틱 드라마다.

/양성운기자 ysw@

아이유·하이포 듀엣 뮤비 1000만뷰

4인 신예 보이그룹 하이포(사진)와 음원 강자 아이유가 함께 부른 '봄, 사랑, 벚꽃 말고'가 뮤직비디오 공개 100여일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하는 저력을 보였다.

지난 4월 8일 원더케이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봄, 사랑, 벚꽃 말고' 뮤직비디오는 지난 22일 1000만 조회를 넘겼다. 23일 오전 8시 45분 현재는 1007만 3948건의 클릭 수를 보이고 있다.

하이포와 아이유는 '봄, 사랑, 벚꽃 말고' 뮤직비디오 공개 100여일 만에 1000만 뷰까지 점령하는 기쁨을 누리게 됐다. 또한 음원차트 및 가요 순위 프로그램 1위도 이미 차지한 '봄, 사랑, 벚꽃 말고'는 뮤직비디오까지 팬들의 관심을 이끌어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히 음원 발표 당시 대중의 호응을 얻으며 방송 출연 없이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하이포는 오는 29일 아이유에 이은 두 번째 뮤즈와 입을 맞춘 듀엣곡 '해요 말고 해'로 컴백할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JYJ 10억대 TV 브랜드 광고

대기업 CF 수준… 엔터업계 최초

그룹 JYJ(사진)가 연예계 최초로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TV 광고를 내보냈다.

JYJ 브랜드 광고는 21일 오후 11시 MBC 월화극 '트라이앵글'이 방송된 직후 전파를 탔다. '트라이앵글'은 JYJ 멤버인 김재중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다. 이번 광고는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지상파와 케이블 TV에서 방송된다.

JYJ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광고는 각 방송사의 골든 타임대 광고 시간에 편성됐으며 3주간 10억원을 들여 대기업 광고 분량의 횟수로 전파를 탄다. 광고가 시작된 후 팬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밝혔다.

광고는 멤버 각각의 매력을 드러내는 장면에서 '원 포 올(ONE FOR ALL)'이라는 카피가 흐르고 JYJ가 함께 모인 장면에서 '올 포 원(ALL FOR ONE)'이라 말하며 강렬한 인상을 준다.

씨제스는 "이 광고는 JYJ의 음반이나 투어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 JYJ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다. 정기적으로 JYJ가 아티스트로서 가지는 역량과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광고 제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엔터 업계의 유래 없는 아티스트 브랜드 광고로 엔터 마케팅의 또 다른 지평을 열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JYJ는 지난 22일 새 앨범 타이틀 곡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했다. /유순호기자 suno@

조선판 웨스턴 무비

히어로물에 서부극 매력 절묘한 조화… 심심한 결말 아쉬움

film review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군도: 민란의 시대

23일 개봉한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감독 윤종빈)는 사극이 아니다. 사극의 틀 안에 히어로 무비와 마카로니 웨스턴 장르의 특성을 잘 버무린 오락영화다. 양반과 탐관오리의 착취가 극에 달했던 조선 철종 13년을 배경으로 신분이 가장 밑바닥인 백정 돌무치(하정우)가 영웅 도치로 변신하는 과정은 전형적인 히어로의 탄생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개인적 복수를 위해 의적의 삶을 택하면서 그 보다 더 큰 인물로 성장하는 모습은 흡사 '스파이더맨'의 피터 파커를 떠오르게 한다.

히어로가 있다면 악당도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 의적패 군도와 대척점에 서 있는 양반 조윤(강동원)은 극 초반 피도 눈물도 없는 전형적인 악역의 모습을 보여준다.

영웅의 탄생과 선과 악의 대립구도를 그린 점은 할리우드 서부극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영화 곳곳에 사용된 음악은 서부 영화에서나 들었을 법한 느낌이며 말을 타고 떼 지어 다니는 군도 패거리들은 의적이 아닌 카우보이에 가깝다.

하지만 영화는 웨스턴의 향기만 빌려왔을 뿐 구체적인 설정은 달리했다. 전통적인 마카로니 웨스턴에서 악역이 단순히 선악 구도를 위해 마련된 장치라면 '군도'의 조윤은 사연 있는 악인으로 묘사된다. 조윤 역시 서자라는 이유로 집안의 멸시를 받으며 살아 온 시대의 희생양이다. 그는 유년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 삐뚤어진 삶의 태도를 갖게 된다.

도치와 조윤이라는 선악 구도가 마련된 상태에서 영화는 다양한 조연 캐릭터들로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권선징악이라는 다소 뻔한 이야기 구조를 택했지만 영화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다양한 조연 캐릭터에 있다. 이경영·이성민·조진웅·마동석·윤지혜 등 군도 패거리들은 각자의 매력을 뽐내며 영화를 꼼꼼하게 채워나간다. 각자의 무기와 장기를 가진 조연 캐릭터는 '어벤져스' '오션스12' 못지않은 재미를 선사한다. 그러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장고: 분노의 추적자'처럼 통쾌한 복수를 바라며 긴 러닝타임을 기다린 관객들에겐 다소 심심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15세 관람가.

강예원·송새벽 PiFan 대미 장식

폐막작 '내 연애의 기억' 주연 레드카펫

배우 강예원(사진 왼쪽)과 송새벽(오른쪽)이 오는 25일 폐막하는 제1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의 대미를 장식한다.

두 사람은 올해 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된 영화 '내 연애의 기억'에서 호흡을 맞췄다. 25일에 열리는 폐막식 행사에는 이권 감독과 강예원·송새벽, 조연 배우 박그리나·김현준 등이 참석해 레드카펫에 오를 예정이다.

'내 연애의 기억'은 번번히 연애에 실패하던 은진이 운명적으로 만난 남자 현석과 인생 최고의 연애를 이어가던 중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반전 로맨스 영화다.

강예원은 화끈하지만 쿨하지 못한 은진을, 송새벽은 완벽하지만 수상한 현석을 연기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폐막작으로 첫 선을 보이는 '내 연애의 기억'은 다음달 21일 정식 개봉한다. /장병호기자

중장년층 위한 영화 행사 '풍성'

CGV '꽃보다 노블레스'·서울노인영화제 등 개최

영화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문화다. 지난해 영화관객수 2억 명을 돌파한 것은 영화 관객층이 그만큼 넓어졌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최근 영화계에서는 중장년층 관객들을 사로잡을 다채로운 행사들을 준비 중이다.

CJ CGV는 중장년층 관객들을 위해 영화와 토크를 접목시킨 '꽃보다 노블레스' 토크 콘서트 시리즈를 CGV 오리에서 오는 28일과 다음달 11일, 25일, 9월 15일 등 총 4회 개최한다. 심리학·역사·음악·건강 등 중장년층 관객들의 관심 분야별 대표 전문가를 초빙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자리다.

상담 전문가 황상민 교수, 역사학과 신병주 교수, 가수 해바라기, 오한진 가정의학박사가 강사진으로 함께 한다. 매 행사마다 '군도: 민란의 시대' '명량' '수상한 그녀' '두근두근 내 인생' 등 주제에 맞는 영화도 상영된다.

제7회 서울노인영화제 포스터

CGV '꽃보다 노블레스' 토크 콘서트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서울노인영화제는 오는 9월 24일 서울극장에서 4일 동안 열린다.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 노인이 되는 것처럼 현재 노인과 미래 노인의 세대 소통을 통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영화 축제다.

영화제 측은 "노인 감독에게는 삶과 세상에 대한 연륜을 소통하며 풍요로운 노년과 자아통합의 장이 되고, 청년 감독에게는 노인과 노인 문화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장병호기자 solanin@

'해무' 토론토국제영화제 초청

한국영화 네 번째… "세계가 주목할 강렬한 연출"

봉준호 감독이 기획과 제작에 참여한 영화 '해무'(감독 심성보)가 제39회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북미 관객들과 만난다.

23일 투자배급사 NEW 측은 "'해무'가 오는 9월 4일 개막하는 제39회 토론토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고 전했다.

토론토국제영화제는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영화제로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여겨진다. 공식 경쟁부문 없이 관객상만 존재하는 유일한 영화제로 작품성과 흥행성을 지닌 것들을 선정해 상영한다.

그 동안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서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하녀' '감시자들' 등의 한국영화가 상영됐다. '해무'는 한국영화로는 네 번째 공식 초청작이다. 올해 상영작 중 유일한 한국영화이기도 하다.

토론토국제영화제 카메론 베일리 예술 감독은 "'해무'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는 드라마다. 심성보 감독은 인상적인 데뷔작을 선보였다. 강렬한 연출방식으로 세계가 한국 감독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심성보 감독은 "1998년 IMF 시대, 한국의 작은 소도시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선원들의 이야기가 토론토국제영화제를 통해 전 세계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돼 가슴 설렌다.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서도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해무'는 제67회 칸영화제 마켓에서 10분 분량의 프로모션 영상으로 일본·프랑스·대만·홍콩·싱가포르 등 5개국에 선 판매됐다. 토론토국제영화제 상영을 통해 전 세계 바이어들의 관심을 또 한 번 받게 될 전망이다.

'해무'는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한 여섯 명의 선원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해무 속에서 밀항자들을 실어 나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김윤석, 박유천, 한예리·이희준·문성근·김상호·유승목 등이 출연하며 다음달 13일 개봉한다. /장병호기자

며느리에게 가지는 금물(?)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여름에는 가지가 맛있다. 요즘이 제철로 가지볶음도 좋고 가지무침도 맛있으며 가지 냉국도 시원하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며느리에게는 가지를 먹이지 말라고 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얼핏 며느리 구박하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며느리를 아끼는 말이다. 가지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아이를 가져야 하는 여성, 특히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는 임신부는 조심해서 먹으라는 뜻이다.

뒤집어보면 여름철 더위를 쫓는데 가지만한 채소가 없다. 더위를 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본초강목에서는 한랭한 성질로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플 수도 있다며 주의를 환기시켰을 정도다.

지금은 가지가 특별할 것도 없는 채소지만 옛날에는 재배가 어려웠는지 가지를 무척 소중하게 여겼다. 가지는 별명이 곤륜과(崑崙瓜)다. 글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곤륜산에서 자라는 오이라는 뜻이다.

무협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곤륜산은 신화에서 신선이 살고 있다는 곳이다. 그러니 곤륜산에서 자라는 오이는 곧 불로장생하는 신선들이 먹는 채소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가지를 보약에 비유했다. 중국 고전소설 홍루몽에 초별갑(草鼈甲)이라는 요리가 보이는데 가지로 만든 음식이다. 초별갑은 풀로 된 자라라는 뜻으로 중국인은 예나지금이나 자라를 최고의 보양음식, 강장식품으로 여긴다. 그러니 가지가 바로 식물성 보양식품이라는 소리다.

터키에는 이맘 바이일디라는 유명한 가지요리가 있다. 이슬람 성직자가 먹고는 맛이 너무 좋아 기절했다는 요리인데 중국이나 터키나 자국 요리에 대한 자부심도 많지만 속된 말로 뻥 또한 대단하다.

가지는 종류가 여럿이지만 우리 땅에서 자라는 가지가 맛에서는 으뜸이었던 모양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한치윤이 해동역사(海東繹史)에 관련 이야기를 적었다. "신라에서 나오는 가지는 모양이 계란처럼 생겼다. 광택이 나고 색은 엷은 보랏빛인데 꼭지가 길고 맛이 달다. 그 씨앗이 지금 중국에 널리 퍼져있다." 역시 신토불이, 우리 가지가 맛있다.

/음식문화평론가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4		1		
4								
			1	8	5	3		9
		1	2			8	9	
			7	1	9			
	2	4			8	6		
8		7	5	2	1			
								2
		2		3			6	

	9							7
			1			8		
3		2	7	8	4			
4		8	5			2		
			3		2			
		3			6	7		9
			2	5	7	3		4
		5			3			
9							1	

스도쿠 정답

5	3	9	6	4	2	1	8	7
4	1	8	9	7	3	2	5	6
2	7	6	1	8	5	3	4	9
7	5	1	2	6	4	8	9	3
6	8	3	7	1	9	4	2	5
9	2	4	3	5	8	6	7	1
8	6	7	5	2	1	9	3	4
3	4	5	8	9	6	7	1	2
1	9	2	4	3	7	5	6	8

8	9	4	6	3	5	1	2	7
7	5	6	1	2	9	8	4	3
3	1	2	7	8	4	9	6	5
4	7	8	5	9	1	2	3	6
5	6	9	3	7	2	4	8	1
1	2	3	8	4	6	7	5	9
6	8	1	2	5	7	3	9	4
2	4	5	9	1	3	6	7	8
9	3	7	4	6	8	5	1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감원없이 회사운영 어려움 많아 경영 공부하고 결단력도 키우세요

Q **달별사랑 남자 65년 1월 13일 음력 시는 모름**

불경기라 다들 인원을 줄인다고 하는데 제사업체는 인원을 늘려서 인건비도 부담되고 안양으로 사업체가 이전하면서 대출도 받고 해서 상당히 어렵네요. 일은 많이 있는데 수금이 잘 안되고 같이 동업하는 곳도 일이 줄고 수금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이며 경비를 제가 많이 부담하고 있다 보니 너무 힘드네요. 제가 너무 귀가 얇은 건 아닌지 결단력이 없는 것도 원인인거 같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부탁하는걸. 거절을 못하는 것도 있어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A 타니대수(拖泥帶水:비탈타, 진흙니)라는 불교 법문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진흙엔 물이 잘 통과하지 않듯이 모든 행동이 꾸물꾸물 느리고 불안한 형태의 구조를 말합니다. 귀하는 사주구조가 '비습한 토양'으로 물끼를 먹은 밭과 같아 재복이 있고 사람들이 따르지만 속으로는 소심하고 속내를 잘 드러 내지 않아 혼자 스트레스를 받는 성정입니다. 잘 되는 회사는 분명 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 잘 안 되는 회사일수록 채용은 쉽게 하고 해고는 잘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직원을 새로 뽑아 교육시키는 일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세가 잘못된 사람, 잘못된 사람을 채용해서 드는 비용은 단순한 월급의 몇 배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제대로 뽑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잘되는 회사는 본업에 충실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반면, 잘 안 되는 회사는 무작정 사업을 넓혀갑니다. 또한 잘 되는 회사에서는 바쁜 사람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에는 겉으로 바쁜 척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개미처럼 열심히 움직이기는 하지만 성과 관리를 안 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안 되는 회사는 변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있지만, 변화의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사소한 변화에 집착할 뿐입니다. 비용절감 운동을 하면서 이면지 사용에 목숨을 걸거나 볼펜 아껴 쓰기, 30분 일 더하기 운동 따위를 하면서 출근시간을 앞당기는 등 실체도 없는 좋은 직장 만들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귀하가 경영에 대한 책을 읽고 잘되는 회사의 노하우를 습득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24일 (음 6월 28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욕심 부리면 화가 날 일 생긴다. **60년생** 어두운 바다서 등대를 발견한 격~. **72년생** 우유부단하면 찾아온 기회도 놓친다. **84년생** 사랑이 들어오니 마음 열어라.

49년생 건강 체크에 신경 써라. **61년생** 작은 것이 나가고 큰 것이 들어온 격이다. **73년생** 가을 하늘만큼이나 마음도 쾌청~. **85년생** 일이 뜻대로 풀려 시원하다.

50년생 가정은 화목하고 분위기 굿~. **62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된다. **74년생** 운수가 별로이니 매사 경거망동 삼가라. **86년생** 집중력이 필요한 날이다.

51년생 한쪽에 치우치면 적만 생긴다. **63년생** 자신감 붙었을 때 밀어붙여라. **75년생** 강박증에 쫓진 투자는 위험 부른다. **87년생** 기회가 왔으니 폼나게 살아라.

52년생 투자는 깊이 생각할 것. **64년생** 사소한 것에 아등바등하면 후회한다. **76년생** 신기루만 쫓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라. **88년생** 타고난 적성 찾으면 이롭다.

53년생 결정은 빨리할수록 손해 적다. **65년생**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말라. **77년생** 먼저 사과하면 덤터기 써니 조심~. **89년생** 귀인을 만나 야심 불태운다.

42년생 자녀의 생각 존중할 것. **54년생** 일이 잘 풀려 새 희망 꿈꾼다. **66년생** 드러난 문제보단 가려진 문제 신경 써라. **78년생** 재치 있게 대응하는 지혜 필요하다.

43년생 믿었던 사람이 서운하게 한다. **55년생** 인연이 없는 일은 욕심 버려라. **67년생** 반대가 심한 일 추진하면 역풍 맞는다. **79년생** 기다리던 소식 문 앞 당도~.

44년생 혼자 외로운 상황 만들지 말라. **56년생** 모임에 가면 자극받을 일 생긴다. **68년생** 내 직급보다 더 높은 시각서 보라. **80년생** 원칙으로 승부해야 후회 없다.

45년생 속마음 드러내면 손해 본다. **57년생** 공돈이 생기니 뜻 깊게 써라. **69년생** 꿈은 나의 변화서 시작된다. **81년생** 상사의 설득은 못이긴 척 받아 들여라.

46년생 돈거래는 단호히 거절하라. **58년생** 생각지 않은 사람이 기쁨 준다. **70년생** 힘든 동료 마음 헤아려 주라. **82년생** 기존의 생각을 바꾸면 새 길이 열린다.

47년생 겉은 편안하나 속은 부글부글~. **59년생** 생각대로 일이 풀려 즐겁다. **71년생** 말썽 많은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 **83년생** 명성 올라갈 경사가 생긴다.

‘남미 호날두’, ‘진짜 호날두’와 한팀되다

월드컵 득점왕 로드리게스 레알 마드리드행

2014 브라질 월드컵 득점왕인 콜롬비아의 하메스 로드리게스(23)가 빅클럽의 숱한 러브콜 속에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구단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했다.

로드리게스는 23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입단식에서 “이곳에 온 것은 내 꿈이 실현된 것이다. 이 구단에서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AS모나코 소속이던 로드리게스를 영입하기 위해 8000만 유로(약 1105억원)의 이적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레스 베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이상 레알 마드리드), 루이스 수아레스(바르셀로나)에 이은 스페인 리그에서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계약기간 6년에 연봉은 700만 유로(약 96억원)로 현지 언론은 추정하고 있다. ‘남미의 호날두’로 불리는 로드리게스는 레알 마드리드의 간판 스타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한솥밥을 먹게 됐다.

입단식에는 3만5000여 명의 팬이 운집해 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로드리게스는 프레드 린콘(48·은퇴), 에드윈 콘고(38·은퇴)에 이어 콜롬비아 선수로는 역대 세 번째로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었다.

지난해 잉글랜드 아스널로 이적한 메주트 외질의 등번호인 10번을 물려받은 로드리게스는 “열심히 훈련해서 내가 출전해야 할 때 좋은 몸 상태로 나가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은 “우리는 유럽챔피언이지만 더 강한 스쿼드를 원한다”며 “축구로 모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선수 가운데 한 명이자 월드컵에서 콜롬비아를 이끌고 대회 최고의 골을 터뜨린 선수가 이제 이곳에 왔다”며 로드리게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로드리게스는 이번 월드컵에서 총 5경기에 출전해 6골 2도움을 기록하며 골든 부트를 수상했다. 우루과이와의 16강전에서 터트린 발리슛은 이번 대회 최고의 골로 뽑혔다.

레알 마드리드는 올 여름 이적시장에서 로드리게스에 앞서 독일 대표 선수 토니 크로스를 영입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하메스 로드리게스(오른쪽)가 입단식에서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왼쪽), 아내 다니엘라 오스피나(가운데)와 함께 등번호 10번이 적힌 자신의 유니폼을 들어보이고 있다. /AP 뉴시스

손흥민 프리시즌 첫 공격 포인트

도움에 페널티킥도 유도

‘손세이셔널’ 손흥민(22·레버쿠젠·사진)이 프리시즌 2경기 만에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손흥민은 23일 오스트리아 첼암제의 알로이스 라티니 슈타디온에서 열린 로코모티프 모스크바(러시아)와의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후반 1분 류승우와 교체되기 전까지 1도움을 올리고 페널티킥을 유도하며 맹활약했다.

손흥민의 활약을 앞세워 레버쿠젠은 로코모티프 모스크바에 3-1로 이겼다. 월드컵을 마치고 나흘 전 레버쿠젠 훈련에 합류한 손흥민은 프리시즌 경기에서 마수걸이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손흥민은 20일 마르세유(프랑스)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되며 처음으로 프리시즌 경기를 소화했다. 그러나 당시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오히려 경기 후 상대 선수와 벌인 승강이가 화제가 됐다.

반면 도르트문트에서 비공식 데뷔전을 치른 지동원(23)은 독일 3부리그 오스나뷔르크와의 연습 경기에 선발 출격해 전반 45분을 소화했다. /양성운기자 ysw@

한화 김태균 귀가 중 교통사고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간판스타 김태균(31·사진)이 경기 후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김태균은 23일 0시2분께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 앞 사거리에서 한밭대교에서 스마트시티 방면으로 운전해 가던 중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가 원촌동에서 엑스포과학공원 방면으로 가던 조모(25)씨의 소렌토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두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의 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화는 22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NC 다이노스를 꺾고 3년 만에 4연승을 기록했다. 김태균은 이날 경기에 부상으로 결장했다. /유순호기자

추신수 이틀 연속 멀티히트

양키스전 6타수 2안타 부진 탈출 청신호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이틀 연속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치며 부진에서 살아나고 있다.

추신수는 23일 미국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의 방문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6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전날 19경기 만에 멀티히트(5타수 2안타)를 기록한 추신수는 좋은 타격감을 이어갔다.

1회초 첫 타석에서 추신수는 상대 선발 체이스 휘틀리의 직구를 받아쳐 중전 안타를 만들었다. 두 번째 안타는 연장 13회 마지막 타석에서 나왔다. 2사 1루에서 데이비드 허프의 시속 151㎞ 직구를 받아쳐 중전 안타를 기록했다.

이날 2안타를 쳤지만 3개의 삼진을 당해 리그 정상급 선구안을 지닌 타자로서 자존심을 구겼다. 3회 휘틀리의 몸쪽 꽉 찬 직구에 스탠딩 삼진을 당했고, 8회 1사 2루의 찬스에서는 상대 투수의 너클 커브에 타이밍을 뺏기며 삼진으로 물러났다. 연장 11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우완 숀 켈리의 낮은 슬라이더에 방망이가 헛돌아 세 번째 삼진을 당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40으로 조금 올라갔다. 텍사스는 14회말 1사 1·3루에서 체이스 헤들리에게 끝내기 안타를 얻어맞아 1-2로 졌다. /유순호기자

프로축구 전적 23일

제주	2	0	전남

△득점 = 박수창②(전18분) 알렉스①(후37분·이상 제주)

부산	0	2	수원

△득점 = 정대세④(전46분) 산토스⑤(후33분·이상 수원)

성남	1	0	경남

△득점 = 김태환②(후11분·성남)

인천	0	0	포항

서울	2	1	상주

△득점= 이승현(후12분·상주) 몰리나(후24분) 에스쿠데로(후36분·이상 서울)

울산	0	0	전북

프로배구 전적 23일

도로공사	3	0	IBK기업은행
우리카드	3	1	현대캐피탈

프로야구 전적 23일

■대전

팀	1-3	4-6	7-9	계
N C	111	010	310	8
한화	010	000	003	4

△승 = 찰리(8승 5패) △세이브투수 = 이민호(3승 2패 1세이브)△패 = 이태양(4승 5패)△홈런 = 피에 9호(2회1점·한화) 테임즈 22호(7회2점) 이호준 16호(7회1점·이상 NC)

■광주

팀	1-3	4-6	7-9	계
L G	000	900	011	11
KIA	210	001	220	8

△승 = 티포드(5승 4패) △세이브투수 = 봉중근(1승 3패 17세이브) △패 = 홀튼(5승 8패) △홈런 = 나지완 14, 15호(1회2점, 8회1점) 신종길 7호(6회1점) 안치홍 14호(8회1점·이상 KIA) 최경철 3호(4회4점) 스나이더 1호(4회3점) 이병규 7, 8호(4회1점, 9회1점·이상 LG)

■사직

팀	1-3	4-6	7-9	계
삼성	304	000	620	15
롯데	070	001	031	12

△승 = 권혁(2승) △세이브투수 = 임창용(4승 2패 19세이브) △패 = 이명우(4패) △홈런 = 채태인 8, 9호(7회1점, 8회1점·삼성) 나바로 20호(7회3점) 이승엽 20호(8회1점·이상 삼성) 최준석 15호(2회1점) 전준우 9, 10호(2회3점, 6회1점·이상 롯데)